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례집

동네 한바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주민자치의 학습과 구현에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적은 마중물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공동 육아 문제를 해결하였고, 마을 문화·예술교실 운영으로 고령인 어르신이 다수인 농촌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정체성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체적인 역할 찾기를 통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충남형 동네자치가 이웃 주민과 함께 나누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는 '주민이 주인 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마을공동체가 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 무엇보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었으면 해요.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이웃집 아이가 돌아다니면 누구네 아이인 줄 알고 챙겨주는 가족같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당진시 송악읍 동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최지희 회장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 동네자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는 마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동네자치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느껴지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앞으로 동네자치를 통해 마을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홍성군 흥북면 중계2리 흥천마을 양주명 이장

“결국 주민에게 답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자치 활동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애정이 있어야만 주민이 주인이 됩니다. 초촌면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초촌면 주민자치회 이보락 회장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례집

동네 한바퀴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례집

동네 한바퀴



주민이 주인 되는 충남형 동네자치

잠시 돌아해보면 과거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이웃을 서로 보살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답을 찾아 해결했던 것입니다. 향약과 계, 두레 등이 공동체를 뒷받침한 그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통은 성장 중심의 정책과 급속한 산업화로 단절되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할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주체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각 개인은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던 공동체의 전통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협력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관계 모델을 재정립시켜야 합니다. 이 요구에 대한 해답이 바로 21세기에 걸맞은 풀뿌리 민주주의이자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는 어려운 정치철학이 아닌 삶의 양식이자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삶의 양식으로서의 주민자치, 즉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주민자치를 추구해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고 그 방점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에 두었습니다.

2014년에 시작한 시범공동체 육성사업은 2018년까지 총 100개소의 마을,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 단위는 민주적 합의구조를 형성해 갈등을 회복하는 모범을 만들어 나가고, 아파트는 거주민 간의

화합과 주민모임 형성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사무 발굴과 읍면 단위 자치기능 강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주민자치의 학습과 구현에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마중물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공동 육아 문제를 해결하였고, 마을 문화·예술교실 운영으로 고령인 어르신이나 다수인 농촌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정체성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체적인 역할 찾기를 통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주권자로서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 속에서 다시 신뢰와 관계라는 이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범공동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시범공동체 육성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우수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성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남형 동네자치가 이웃 주민과 함께 나누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는 '주민이 주인 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충남형 동네자치는 주민, 공동체 리더, 활동가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장

충남도는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주민자치 지원 조례제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주민 및 공무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매년 3,000명), 주민자치우수사업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공동체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과 마중물 사업비(300~500만원)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시범공동체 26개소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마을의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주민들의 희망과 꿈을 엮어 사진과 함께 담았습니다.

여기에 담긴 사례집 구성은 ▲자연과 함께하는 숨 쉬는 건강한 동네 ▲문화와 예술로 꾸미는 행복한 동네 ▲스스로 함께 만드는 희망의 동네로 분류했으며, 이번 시범공동체 육성 사례집이 지역 풀뿌리 공동체 활동의 표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와 새로운 희망을 찾은 시범공동체 우수사례 중심으로 엮어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지면으로 사례집에 다 담기 어려운 우수사례도 많았으며, 경험이 부족한 짧은 주민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공동체별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자치위원장 등 공동체 대표들의 열정과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지원한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많았습니다.

특히, 시범공동체 육성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자치문화 꽃을 피우기 위해 밤낮없이 동분서주하며 활동해 주신 컨설턴트(활동가 공정해, 김미화, 복권승, 이동준, 이원하, 정경란, 정경환, 최병조, 황선만 등)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아래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 등 26개소 시범공동체 주민과 리더 여러분, 컨설팅을 맡아 주신 (재)지역재단, (사)충남시민재단, (사)풀뿌리사람들 관계자,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님, 목원대학교 장수찬 교수님 그리고 천안시 등 15개 시군·읍면동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남형 동네자치는 주민, 공동체 리더, 활동가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장입니다.

2016년 11월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동네

- 012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
내가 만든 생기있는 나의 마을
- 020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영천마을
주민자치로 갈등 치유와 화합을
- 024 공주시 반포면 온천2리 사봉마을
마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 028 보령시 성주면 주민자치위원회
성주를 알자
- 036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
함께 성장하는 마을과 주민
- 044 서산시 석남동 센스빌아파트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
- 048 논산시 벌곡면 주민자치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스한 정
- 052 당진시 송악읍 이편한세상아파트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린아파트



문화와 예술로 만드는
행복한 동네

- 058 천안시 문성동 주민자치위원회
변화하는 마을 북적이는 사람들
- 062 당진시 송악읍 동광아파트
작은도서관으로 꽃피는 마을
- 070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홍도화 따라 퍼지는 따스한 마음
- 074 서천군 서면 주민자치회
문화예술 활동이 만들어낸 기적
- 078 서천군 판교면 흥림2리 흥림마을
주민자치,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잇다
- 082 홍성군 홍북면 중계2리 흥천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예술마을
- 086 예산군 대흥면 주민자치회
우리 손으로 만드는 풀뿌리 주민자치
- 090 예산군 삽교읍 상하1리 초막골마을
멜로디 따라 부는 따스한 바람
- 098 태안군 이원면 내2리 만대마을
마을과 일상에 예술이 번질 때



스스로 함께 만드는
희망의 동네

- 108 천안시 쌍용3동 주공9단지 아파트
일상에 문화가 깃드는 아파트
- 116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다양한 삶이 모여 더 풍성한 마을
- 124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은고개마을
산골오지에서 희망을 말한다
- 128 아산시 온양5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을
- 132 서산시 동문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내 집처럼 따뜻한 아파트
- 136 논산시 광석면 주민자치위원회
전통이 이어지는 마을
- 140 부여군 초촌면 주민자치회
주민에게 답이 있다
- 148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양송이마을
마을 전통 축제로 화합의 계기 마련
- 152 청양군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장난감 도서관

CONTENT

동네 한바퀴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례집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동네



내가 만든 생기있는 나의 마을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



원성1동은 천안시 원도심이다. 비교적 지역주민 평균연령이 높은 마을을 아이들이 북적이고 생기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원성1동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봄에 열리는 '고사리나눔장터'와 가을에 열리는 '원성천 어울리나눔장터'를 통해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버려진 공간을 텃밭으로 만들어 죽어있는 땅을 살아나는 땅으로 만들고, 중·고등학생과 부모가 안심순찰을 하며 마을을 안전하게 가꾸고 있다. 원성1동 주민자치회가 기획한 모든 행사의 주안점은 아이들이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자라는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활동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곳이 진정한 내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마을, 원성1동이다.

변화하는 주민

변화하는 마을

천안시는 '하늘 아래 가장 편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태조 왕건이 태조산에 올라 천안을 바라보며 '이곳에 성을 쌓으면 천하가 편안해진 다.'라고 말할 때서 유래했다. 원성1동은 천안이라는 이름이 유래한 태조산 산기슭에 있다.

“지금 오룡경기장이 있던 데가 원래 화장터가 있던 곳이야. 우리 어릴 때는 비가 오면 저기서 귀신이 나온다고 했었어. 난 쪽 이 동네에 살았어. 사진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

원성천 어울리나눔장터에 전시된 원성1동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보며 소진영 씨가 말한다. 그는 1944년 원성동이 원성정이라 불리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집 몇 채만이 황량하게 서 있는 흑백 사진 속 모습과 달리 오늘날 원성1동은 인근에 역과 버스터미널이 있는 원도심이다.

천안시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 중 하나가 원성1동이다. 원성천이 흐르고 공기가 좋아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사는 곳이었다. 하지

만 천안시가 성장하며 신도시가 생기고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주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원성1동 마을 주민들은 다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젊은 사람이 모여 북적이던 생기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변해야 했다. 2013년에 주민자치회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하며 마을이 변할 방법을 모색했다. 원성1동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구축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원성1동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눔장터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안전하게 가꿀 수 있는 마을텃밭가꾸기, 안심순찰 등을 기획했다. 이런 활동을 마을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마을신문 만들기에도 힘을 쏟았다. 활동이 회를 거듭할수록 소극적이던 마을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다른 마을에서 주민자치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원성1동을 찾을 정도로 마을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 원성1동의 다양한 활동은 점점 천안시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원성1동은 젊은 사람들이 다시 정착하는 마을로 변하고 있다.

마음이 흐르는 마을

원성1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원성천은 원성1동 마을 주민의 쉼터다. 날씨가 좋을 때면 주민들은 원성천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원성천이 가장 붐빌 때는 매해 가을 원성천 어울림나눔장터가 열리는 날이다. 주민의 나눔 활동이 원성천 물줄기처럼 흘러나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곳에서 나눔장터를 열기 시작했다.

원성1동 나눔장터는 일 년에 2번 열린다. 봄에는 고사리 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오룡경기장에서, 가을에는 원성천 어울림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원성천으로 마을 주민이 모인다. 2013년도 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나눔장터는 올해 9월 24일 6회를 맞았다. 올해 봄 열린 고사리나눔장터에는 120팀이, 가을에 열린 원성천 어울림나눔장터에는 60팀이 참여했다.

나눔장터에 참여한 모든 주민은 수익이 아닌 나눔을 위해 모인다. 서예, 페이스페인팅, 요리 등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주민도 있다. 나눔장터가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의 손길이 남은 물건과 수공예 물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나눔장터에는 유난히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은 자신이 아꼈지만 이제는 쓰지 않는 장난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다과 등을 직접 판매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곳이 자신의 마을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자 한 것도 나눔장터를 시작한 이유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마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는 노력하고 있다.

나눔장터가 주민 모두를 위한 축제로 자리잡기까지 과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인근 상가의 민원, 주차 문제, 화장실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



제가 많았다. 나눔장터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의 소극적인 태도도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몇몇 마을 주민은 오랜 시간 고민하며 다른 도시의 성공적인 나눔장터 사례를 공부했다. 꾸준히 인근 상가를 방문해 나눔장터의 목적이 마을 상권활성화임을 설명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나눔장터가 마을 축제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주민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눔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오룡정기장으로, 원성천으로 주민들이 몰려든다. 인근 상가 상인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제는 나눔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협조한다. 원성1동 주민만 참여하던 나눔장터는 이제 천안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다.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마음

원성1동은 이야기가 많은 마을이다. 마을에 크고 작은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화한다. 원성1동 마을신문 ‘행복마루’ 편집장을 맡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김효숙 씨다. 행복마루는 6개월에 한 번씩 발행한다. 지난 2016년 8월 1일에는 5호를 발행했다. 마을신문 ‘행복마루’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마을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마을신문에서는 각종 마을 행사를 알리고 주민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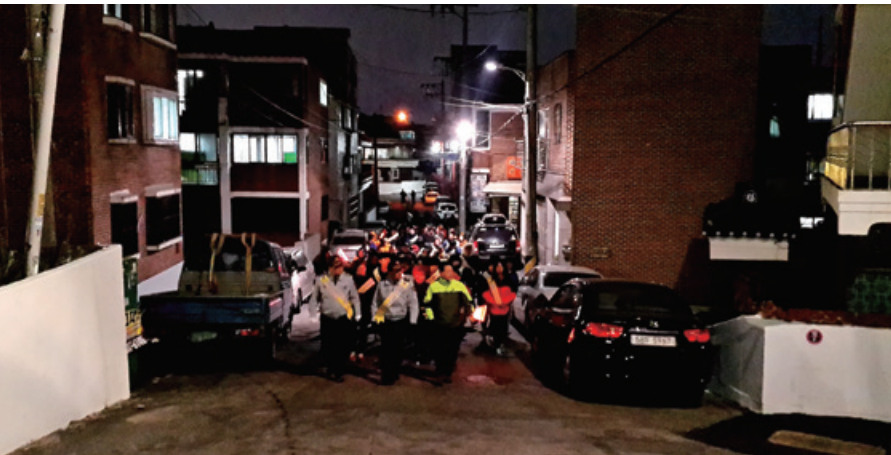
마을 주민 5명이 ‘도담도담 주민을 잇는 마을 소식지’라는 주제로 발행하는 마을신문을 위해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원성1동에 애정을 품고 있는 마을 주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사가 주를 이루기에 전문가를 섭외하기보다는 마을 주민이 직접 기자로 참여했다. ‘행복마루’ 기자 모두 전

문가가 아니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다. 기사를 쓰는 방법, 기삿거리를 찾는 방법 등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았다. ‘행복마루’ 1호를 준비하며 마을 기자들은 신문사 편집장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출판과 관련된 법규를 공부하기도 했다. 현직 기자로 활동하는 주민이 마을신문을 교정, 교열하며 재능 기부하기도 한다. 오랜 시간 많은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이제는 제법 노하우가 생겼다.

“무엇보다 마을의 변화를 알리고 싶었어요. 나눔장터, 안심순찰, 텃밭가꾸기 등 우리가 움직이니 마을이 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름다운 마을이 아름다운 마음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마을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행복마루’ 편집장 김효숙 씨는 마을 주민 모두가 마을의 변화를 느끼길 바란다. 올해부터 ‘행복마루’를 원성1동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이 마을을 만들어 갈 아이들에게 주민 손으로 직접 만든 마을을 보고 느끼게 하고 싶다. 생기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 갈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울이 바로 마을신문 ‘행복마루’다.





우리가 만든 안전한 마을

후미진 골목, 오랜 기간 비어있는 집, 쓰레기가 버려진 모퉁이.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공간이다. 원성1동 주민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씨앗을 들었다. 우범지역을 청소하고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심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시작한 마을텃밭가꾸기 활동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텃밭에 심은 작물이 지금처럼 풍성해지기까지 원성1동 주민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 시간이 나는 사람이면 언제가 됐든 마을텃밭으로 향했다. 조금씩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다. 후미진 골목이 밝아졌고, 쓰레기가 버려진 모퉁이가 깨끗해졌다. 일탈을 일삼는 아이들이 모이던 장소가 사라졌다. 이제는 텃밭이 제법 풍성해 가끔 손질하는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는 경로당과 독거노인, 소외계층에게 전달한다.

2013년부터는 안심순찰도 시작했다. 원성1동 마을주민은 모두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 안심순찰을 하고 있다. 마을순찰이 회를 거듭할수록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민들의 바람처럼 마을이 조금씩 안전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안심순찰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20~40분 정도 마을을 돌아요. 할수록 재밌어요. 내가 사는 마을이 안전해지고 내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진짜 내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자원해서 친구들이랑 안심순찰을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안심순찰에 참여하고 있는 천성중학교 임형규 학생처럼 점점 자원하는 학생들도 늘었다. 내가 사는 마을을 지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도 커졌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있다. 아이들은 마을을 순찰하며 마을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조용했던 원성1동은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거리마다 아이들이 북적인다. 학생들은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을 이끌어갈 성숙한 주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최재호 회장은 “원성1동이 더 생기있고 북적이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나눔장터, 안심순찰, 마을텃밭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한다.



주민자치로 갈등 치유와 화합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영천마을



선부른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은 간혹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평화롭던 농촌 마을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진다.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사업이 도리어 소통단절로 이어지는 거다.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영천마을이 그랬다. 수 년 전, 주민들 간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마을 공동체 존립 위기를 불러왔다. 영천마을은, 그 당시 불거졌던 갈등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풀어냈다.

선부른 사업으로 소통단절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를 멀리서 보면 차령의 서쪽 줄기를 이루는 무성산 기슭에 등지를 뜬 모양새다. <정감록>에서는 한천리를 심승지로 지목했다. 그만큼 산수의 조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명당이다. 옛 지명은 영천마을이다. 신령 령(靈)에 내 천(川)을 써 영천마을이라고 불렀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신령스러운 샘이 있는 마을이라고 전해진다. 마을 가운데로는 무성산에서 굽이쳐 내려온 하천이 흐른다. 이 하천을 기준으로 마을은 상영천, 하영천으로 나뉜다.

청정마을 영천마을에 문제가 생긴 건 약 10년 전이다. 당시 '5일은 도시에서 보내고 2일은 농·산촌에서 보내자'는 취지로 5도 2촌 사업이 벌어졌다. 영천마을도 이 사업에 선정되어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거다. 최동진 이장은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다."라고 말한다.

"사업도 일회성으로 종료된 데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더욱이 마을 가운데로 하천이 흐르는 지형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 윗마을, 아랫마을 간 소통 단절로 이어졌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난 후로도 한동안 영천마을 주민들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갈등을 풀어낼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다.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동체 사업

영천마을의 갈등은 지난해 비로소 풀릴 수 있었다. 반전의 계기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이었다. 처음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

동체 육성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반대했다. 이미 마을 사업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터라 반가울 리가 없었다. 주민들은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냐고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컸다. 그럼에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시혜적 사업이 아닌,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주민자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잖아요. 주민들이 모두들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하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전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최동진 이장의 기대는 적중했다. 지난해 영천마을은 지원금으로 상영

천, 하영천 마을에 각각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설치했다. 노인회 중심으로 마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에도, 분리해서 고물상 등에 되팔 때에도 주민들이 모여 같이 작업했다.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진행한 덕분에 마을 정화도 되고, 수익 창출을 통해 마을회관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 간 교류가 잦아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이점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어 올해에는 마을 중간 중간에 꽃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또한 마을에 볼거리를 조성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주민 모두가 함께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화합하길 바라는 목적이 더 크다.

갈등 치유와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영천마을의 주민자치는 조금 특별하다. 이번 사업 덕분에 영천마을은 정감 있던 예전의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는 마을 주민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마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공주시 반포면 온천2리 사봉마을



마을 공동체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두가 잘사는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지만, '어떻게 잘사는 마을을 만들지'에 대한 논의와 활동은 다양하다. 그런 맥락에서 공주시 반포면 온천2리 사봉마을은 지난해와 올해, 조금 특별한 공동체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 자체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특별했다. 대부분의 시골마을이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된 업으로 삼는 것에 비해 사봉마을 주민들 중 절반 이상은 식당이나 펜션 등을 운영하는 상업 마을이다. 사봉마을의 고민과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했다.

마을 발전의 한계를 인식하다

사봉마을은 계룡산과 갑하산에 둘러싸여 있다. 사봉이라는 지명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김주복 이장은 “지금은 잘 정비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산사태가 많은 마을이었다.”라며 “그래서 모래사(沙), 봉우리 봉(峰), 모래 봉우리에 둘러싸인 마을이라고 해서 사봉마을이라고 전해진다.”라고 말한다.

지리적으로는 대전시와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마을이다. 박정자삼거리에서 동학사로 들어가는 초입이 바로 사봉마을이다. 동학사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사봉마을을 거쳐 가는 거다. 그렇다 보니 여느 시골마을과 달리 사봉마을 주민들의 60% 이상이 식당이나 펜션 등을 운영한다. 문제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실 우리 마을은 관광지라기보다는 관광지 옆에 있는 마을인 거죠. 동학사를 오가는 관광객이 우리 마을에 들러 식사나 숙박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의 자체적인 관광 콘텐츠는 없습니다.”

동학사라는 관광지에 의지해 외식, 숙박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마을의 자체적인 관광 콘텐츠가 없다 보니 마을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거다. 사봉마을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첫 번째 과제는 마을 재정비

사봉마을이 본격적으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한 건 2014년부터다. 사봉마을 주민들은 급하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려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마을을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것이 마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마을에는 반포면 남동 경계부의 도덕봉 등지에서 발원한 사봉천이 흐릅니다. 이 사봉천을 살리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마을 진입로를 비롯해 마을로 오가는 마을길을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은 사봉천 살리기와 아름다운 마을길 만들기를 통해 마을을 정비하고, 그 뒤에 어떻게 관광객을 유입시킬지, 어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지 논의하기로 한 거다. 마을 재정비 사업에는 사봉마을 청년회가 주

도적으로 참여했다. 마을 청년회는 하천 쓰레기 줍기부터 수변 정화 식물 재배 등 사봉천살리기 운동에 앞장섰다. 또 마을 진입로와 안길 제초 작업, 꽃 심기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덕분에 마을 안팎이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

“하천을 살리고 마을을 깨끗하게 가꾼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연속적으로 사봉천 살리기와 아름다운 마을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재정비한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마을이 깨끗해지면 주민들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 사봉마을 주민들도 마을이 많이 깨끗해졌다면서 좋아들 합니다.”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논의해볼 계획이다. 동학사와 차별화된 등산로를 조성해보자는 방안, 마을 내 위치한 저수지를 유원지로 만들어보자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어쨌든 마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성주를 알자

보령시 성주면 주민자치위원회



충남 보령시 성주면은 성주사지, 백운사, 화장골 계곡, 탄광촌의 역사 등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성주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주민자치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성주를 알자'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주민과 함께하고 있다. 류동열 주민자치위원장은 "성주를 알아야 성주를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수십 년을 살아온 지역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역사문화가 깃든

아름다운 고장

보령시 성주면은 서쪽으로는 남포면을 면하고, 동쪽으로는 부여군과 맞닿아 있다. 성주면은 크게 2개 법정리인 개화리와 성주리로 나뉜다. 개화리는 조선시대 말기에는 남포군 북외면의 지역으로서 성주산의 목단이 이곳에 개화한다는 뜻에서 개화 또는 개화내 그리고 개화천이라 부르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조계동, 상개리, 하개리를 합쳐 개화의 이름을 따서 개화리라 하였다. 80여 호의 밀양 박씨 집성부락이 있었다. 이곳에는 구사택, 구역말, 도투마릿들, 말재밀, 삼거리, 탑골, 가자골, 함박골, 갓굴재 등의 지명이 있다. 성주리는 조선시대 말기 남포면 북외면의 지역이었다. 성주산 아래에 있어 성주골, 성주동이라 부르던 지역이다. 성주리에는 신촌말, 심연동, 수원터, 창텃굴, 벌뜸, 어덩이골, 상아니골, 물탕골, 화장골, 바른골, 뱀재, 바래기재, 상수리재 등의 지명이 존재한다.

40.91km² 규모에 2,800여 명(1,295가구)이 거주하고 있는 성주면은 역사, 자연,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고장이다. 보령 지역에서 유일하게 통일신라시대 문화 유적을 간직한 곳으로, 성주사지(사적 제307호)와 백운사(충남 전통사찰제6호)가 자리하고 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는 탄광촌이 성업하며 우리나라 석탑산업을 이끌기도 했다. 1980년대 말경

폐광을 하게 되면서 잠시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폐광 지역을 활용한 양송이 버섯재배,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하며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대천해수욕장, 성주산 자연 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등이 있어 자연과 문화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성주면 주민들은 마을이 지닌 자원들에 대한 이해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찾아와도 마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성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사업을 하며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려면 자신의 마을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이전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성주면 주민자치센터를 목적지로 두고 웅천천을 따라 이어진 길을 내달리다 보면 개화예술공원, 보령석탄박물관 등 성주면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자원들을 차례로 지난다. 가을볕을 받아 더 너르고 푸르게 펼쳐진 성주사지를 지나치면 아담하지만 넉넉한 마을에 접어든다.

주민자치는 '나'를 아는 것에서 출발

“주민자치를 하려면 일단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성주면에 오래 살았어도 성주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처음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선정돼 주민자치 컨설팅을 받으며, 성주면에 있는 화석에 대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지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올해 후속사업으로 ‘성주를 알자’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성주면 주민자치위원회 류동열 위원장의 말이다. 성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민자치컨설팅을 실시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자치의 주역으로서 일하게 하며, 주민의 목소리가 담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컨설팅 초기에 마을조사가 선행됐다. 마을조사를 바탕으로 성주면에 맞는, 그리고 성주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마을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주면에 화석이 다량 발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성주면에는 중생대 화석이 있어 오래 전부터 관련 연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충남 지역에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무연탄 매장량이 많아 1980년대까지 국내 주요 탄광촌이었던 성주면 지역은 지질학의 보고이기도 했던 것이다.

성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성주면의 화석을 주제로 모범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갔다. 그 첫 시간으로 성주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강인기 교사의 인솔 하에 개화리 뒷산에 올라 직접 화석 발굴 체험을 했다. 발굴한 화석들로 주민자치위원회 건물 로비에 화석 전시대를 만들기도 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보아 와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돌들이 실은 소중한 자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후에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정

모 관장의 화석과 지질학 강의를 들으며 마을의 화석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다. 이처럼 네 달 여에 걸친 주민자치 컨설팅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은 마을 자원은 주민이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주민과 함께 마을 의제를 만들어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화석에 대한 지식을 갖춘 주민을 육성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그렸다.

성주를 '다시' 알아가는 여정

올해 사업 주제인 '성주를 알자'는 지난해 주민자치 컨설팅을 통해 다루었던 주제를 한층 발전시킨 것이다. 2016년 후속지원사업은 성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도함으로써 그 의미가 한층 특별하게 다가왔다.

“성주면은 과거 탄광촌이었을 때 광부 일을 하기 위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의 전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해 오고, 또 떠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농촌 지역보다 마을에 대한 애정이 적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토박이인 사람들도 지역에 대해 무관심했구요. '성주를 알자'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성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의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를 하며 '내 지역을 사랑하는 성주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8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되는 '성주를 알자' 사업은 성주면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느끼고,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총 10회 차로 진행하며 성주의 역사, 문화재와 인물, 일반현황, 암석과 화석, 석탄, 선진지 견학, 자연 체험 등 각각도에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회차마다 강의와 현장체험을 번갈아가며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 23일은 첫 현장답사가 있는 날이었다. 이날은 성주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20여 명이 모여 조현명묘와 성주사지를 둘러보며 미처 몰랐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특히 신라시대 유적인 성주사지는 한때 2,000여 명의 승려가 머물며 전국 최고의 사찰로 손꼽히던 곳으로 주요 문화재로 인정받는 곳이지만, 주민들조차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던 터였다.

“애들 어렸을 때 여기 나와서 놀라 그러면 잘 놀았는디...”

“여기로 소풍도 많이 오고 그랬지.”

마을에 있는 문화재와 함께 숨 쉬듯 살아 온 주민들은 동네 편안한 유원지쯤으로 여겼던 성주사지를 둘러보며 새로운 감회를 내비쳤다. 비록 임진왜란 때 사찰이 소실돼 지금은 몇몇 석탑과 최치원의 낭혜화상부도비 등 주요 유물들만이 남았지만, 널따란 절터는 이곳을 찾은 이들을 안아주는 듯 넉넉한 기운이 가득하다.

주민들은 보령문화원 황의호 강사의 설명을 따라 유적을 둘러보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 자원 살려

자립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이장이지만 마을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했고, 잘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성주사지 근처 마을에 사는데도 관광객들이 왜 이곳에 올까 궁금했어요. 오늘 탐방을 하며 많이 느꼈어요. 외지인이 왔을 때 마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려면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성주4리 서광수 이장은 1977년에 탄광 일을 하기 위해 성주에 왔다가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다. 현재 성주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성주를 알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삼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는 김웅 씨(성주3리 거주) 또한 성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지역 문화 자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었다고 말한다.

“토박이지만 마을 구석구석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주면에 조현명묘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성주사지의 역사를 들으며 소중히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그리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던데요. 성주면은 바다가 가깝고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에요. 옛 탄광 발굴 작업을 하며 관광 자원도 만들고 있고요. 주민들이 지역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마을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류동열 주민자치위원장은 “성주의 문화재는 주민이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행히 2015년~2016년에 걸쳐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하며,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봐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첫 강의 때부터 30여 명이 참여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욕이 아주 높습니다.”



류동열 주민자치위원장은 성주면 곳곳에 지역의 자원이 풍부한 만큼, 주민들 스스로 이러한 문화자원을 이용해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주는 화장골 계곡, 심연동 계곡 등 수려한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개화예술공원은 매년 방문객도 상당하고요. 옛날 광부들이 살던 집 등 탄광촌의 역사를 보존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자면 주민들이 지역 문화를 지키고,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지역 문화에 대해 잘 알려줄 수 있어야겠죠. 앞으로는 성주면 토박이인 고령자들로부터 성주면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사료를 정리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마을과 주민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



봉지 포도로 유명한 아산시 탕정면은 아산신도시와 천안·아산역이 개발되며 지난 10년 새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논이 사라지고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섰고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아산 지중해마을이 생기며 관광단지가 조성돼 탕정면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났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탕정면 주민자치회는 목요장터, 마을 공동소유 포도농장, 책 놀이 동화구연, 커다란 부모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변화한 마을 새로운 사람들

탕정면은 아산시 동쪽에 자리하며 천안시와 인접해 근교농업이 발달한 마을이다. 곡교천과 매교천 등 면 대부분에 물이 풍부해 예로부터 논농사와 과수 재배가 풍성했다. 마을 곳곳에 포도농장이 있을 정도로 봉지 포도로 유명하다. 탕정면은 따뜻한 샘인 온천이 난다 하여 백제 시대 때 아산 일대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현재 탕정면에는 매곡리, 갈산리, 용두리, 명암리, 동산리, 호산리 등 6개의 법정리가 있다.

“처음 탕정면에 이주했을 때는 주변이 전부 논밭이었어요. 신도시인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집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면 마을이 변한 게 느껴집니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어린 자녀를 둔 30대인 것 같네요.”

아산신도시가 형성되며 탕정면으로 이주한 이은경 씨는 마을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농업지였던 탕정면은 인근에 아산신도시와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이 조성되며 변하기 시작했다. 논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 자리에 산업단지 와 아파트가 들어섰다. 공업단지와 주거단지가 형성되며 길이 나고 상가가 생겼다. 2009년부터 2012년, 2014년에는 순차적으로 탕정면 아파트 단지에 주민이 입주했다.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20~30대 젊은 세대다. 젊은 주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탕정면에는 어린이 소리가 가득차기 시작했다.



아산시가 성장하며 탕정면사무소 맞은편에는 관광단지가 조성됐다. 아산 지중해 마을은 유럽 지중해 해안가 마을처럼 하얀 건물과 선명한 파란 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이색적인 풍경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탕정면을 찾기 시작했고 아산 지중해 마을은 금세 관광명소가 됐다. 관광산업이 성장하며 탕정면 상권도 조금씩 활성화하고 있다.

상생하는 주민자치

탕정면에는 짧은 순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마을이 변했고 주민이 변했다. 새로운 마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지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는 주민 회의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컨설팅을 거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탕정면 주민자치회는 이주민이 마을에 애정을 갖고 원주민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탕정면사무소 앞에는 작은 장터가 열린다. 2013년부터 시작한 목요일장터는 탕정면에 정착해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과 공업에 종사하는 이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이다. 로컬푸드 직거래장으로 아산사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지역주민이 직접 재배한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다른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역 농민은 재배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바른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다. 탕정면 주민자치회 한중태 회장도 매번 목요일장터에 판매자로 참여하고 있다.

“중간 유통과정과 유통 비용을 없애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판매하는 농산물이나 사람들이 믿고 구매하는 것 같아요. 매번 농산물이 금세 사라 집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같은 마



을 주민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번 장터가 성황리에 열립니다.”

탕정면 주민자치회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을 포도농장도 운영하고 있다. 포도농장은 마을 주민이 함께 가꾸는 공동소유지로 이주민이 원주민과 함께 마을 특산물인 포도를 재배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안정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포도농장을 시작한 이유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함께 만든 포도로 와인과 즙을 만들어 지역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그 수익은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2013년 처음으로 포도농장을 일구기 시작했고 2017년이면 본격적으로 풍성하게 영근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

“포도 농장은 학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일굴 계획입니다. 흙 밟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포도 농장을 체험하며 자연을 느끼고 탕정면 주민으로서 마을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작은도서관 커다란 부모

탕정면사무소 3층에 자리한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다. 탕정면으로 이주한 젊은 세대가 마을에 쉽게 융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는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수업 받는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쉽게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주민자치회는 그 일환으로 지난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육성 사업을 지원 받아 작은도서관에서 책놀이 동화구연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이 책을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고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수업이다. 동화구연 강사가 책을 선정하고 아이들에게 읽어준다. 아이들은 책 내용을 유심히 들은 후 자신이 책을 읽으며 생각한 점과 느낀 점을 표현한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아이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넓히고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책놀이 동화구연 수업 마지막 시간에는 주도적인 독서 습관을 들인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기도 했다. 주민자치회는 발표를 마친 모든 아이를 시상하며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책놀이 동화구연은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호응이 좋았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고정 프로그램이 됐다.

탕정면 주민자치회는 주도적인 독서 습관을 만드는 책놀이 동화구연

을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책놀이 동화구연을 통해 유대를 형성한 주민들이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한 커다란 부모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는 부모가 강사가 되는 수업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는 수업을 통해 주도적인 독서 지도 방법을 배운다. 나아가 수업을 마친 부모들이 독서 지도 자원 봉사로 마을 공동체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수업은 오는 12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한다. 탕정면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

서산시 석남동 센스빌아파트



아파트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 벽 두께는 얼마나 될까. 서산시 석남동 센스빌아파트의 경우 불과 25cm라고 한다. 30cm도 안 되는 벽 너머에 이웃이 살고 있는 거다. 문제는 심리적 거리감이다. 특히나 센스빌아파트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아 이웃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센스빌아파트는 ‘봉사’라는 키워드를 핵심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했다.

공동의 목소리를 계기로 시작한 봉사활동

2003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센스빌아파트에는 17개동 1,093세대가 산다. 센스빌아파트에서 주민자치가 이뤄진 건, 입주하고 2~3년 뒤다. 센스빌아파트 김운규 관리소장은 “그즈음부터 아파트 단지 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다.

“임대아파트다 보니 맞벌이 부부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당연히 이웃 간 소통도 부재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층간소음 문제, 이웃 간 불협화음 문제 등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때부터 일부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자치를 실시했습니다.”

본격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진 건 2008년부터다. 5년 임대가 완료됨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이 됐고, 주택공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거다. 공동의 목표로 함께 힘을 모으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 화합이 됐다. 또 이를 계기로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센스빌아파트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집중하게 된 것도 이 덕분이다.

“그때부터 연탄은행과 연계해서 연탄 봉사도 하고, 태안기름유출사고 때는 많은 주민이 함께 태안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또 센스빌아파트 앞 청지천 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지천 정화활동은 센스빌 아파트를 대표하는 ‘걷기대회’ 행사로 발전했다. 매년 10월 중순, 가을 들판에 벼가 익어갈 무렵 진행한다. 올해로 벌써 5회째 행사를 진행했

다. 센스빌 아파트에서 출발해 청지천, 석남동주민센터를 거쳐 다시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는 4~5km 거리를 함께 걸으며 정화활동을 하는 거다.

“인근 주민들까지 2,500명 정도가 참여할 만큼 인기 있는 행사입니다. 단순하게 걸으면서 정화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청지천에 도착하면 함께 음식도 나누고, 줄넘기, 팔씨름왕 선발대회, 보물찾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아주 즐거워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주민들 간 화합도 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니까 일석 삼조인 거죠.”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관리비 낮춰

2014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한 것은 센스빌 아파트에 용기를 준 계기였다. 다양한 봉사활동과 주민자치를 하는 데 있어 재정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관에서 신경 써준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사비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욱이 행사 진행할 때 한두 사람이라도 불평불만이 나오면 힘이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충남도와 서산시에서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함께 지원해주니까 힘이 되는 거죠. 관에서도 이렇게 신경

을 써주는 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센스빌아파트는 시범공동체 컨설팅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한 주민자치를 실시했다. 이전까지 봉사활동과 정화활동이 중심이었다면 2014년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다. 대표적인 게 전등 끄기 캠페인 ‘불 끄고 별보기’ 행사였다. 이밖에도 센스빌아파트는 LED 교체, 난방비 개선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사업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효과도 톡톡히 봤다. 지난해 대비 올해 6개월 간 전기와 수도세에서 2,000만 원 이상을 절감했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얻어낸 값진 결과다.

“2008년 대비 센스빌아파트 분양가가 2.7배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나 많이 오른 건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파트가 특별하게 시설적으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층간소음이 뭐야?’ 할 정도로 주민들 간 화합이 잘 되고, 주민들 삶의 질이 나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이런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화합이 잘 되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스한 정

논산시 벌곡면 주민자치회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조금 부족한, 혹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나의 이웃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논산시 벌곡면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활동을 들여다보면 한 글자가 생각난다. 정(情). 벌곡면 주민자치회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활동에 따스한 배려와 마음이 담겨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더불어 사는 게 아닐까 싶다.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에 따뜻한 마음 전달



논산시 벌곡면의 남쪽으로는 대둔산의 수려한 산세가 병풍처럼 드리운다. 북쪽으로는 갑천을 따라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흐른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지역이다. 자연과 역사, 전통에 비해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벌곡면에는 24개 마을, 1,446세대에 2,900명 정도가 살아간다. 인구 규모로 보자면 논산시에서 가장 적다.

인구가 감소하는 걸 제외하고 특별할 것 없던 벌곡면이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다. 김유배 벌곡면 주민자치회장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벌곡면 주민자치회는 2010년부터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후원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다문화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열어 따뜻한 정을 나눴다. 소외된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한 거다.

“새로운 동지를 틀고 생활하는 이주여성들이 소속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행사 취지입니다. 이주여성들이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각종 문구류와 생활용품 등을 지원해 한국문화



적응을 돕는가 하면, 2013년부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주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항공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2013년에 8명, 2014년에 20명 등 많은 다문화가족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별곡면 주민자치회의 따스한 마음은 독거노인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한다. 한겨울을 제외하고 1년 중 10개월 동안은 한결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아침 8시부터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 위원들이 독거노인들의 빨래를 수거해옵니다. 오전 중에 빨래를 완료하고 건조시켜서 오후에 다시 배달해드립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 하는 사람들도 즐겁게 하고,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도 감사해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업인 거죠.”

새로운 내일을 위해 철쭉단지 조성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2014년부터는 조금 더 값진 사업을 추진했다.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오지마을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을 설치한 거다. 이와 더불어 마을회관마다 체중기, 혈압체크기, 혈당체크기 등 건강 확인 장비와 공용소화기를 배부했다. 의료와 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시골마을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별곡면 주민들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을소식지도 발행하기 시작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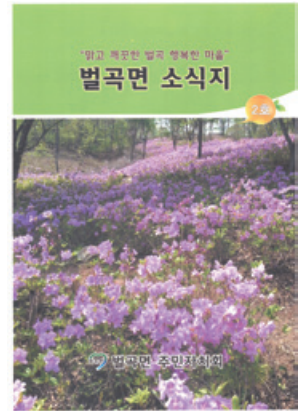
다. 1년에 4번씩, 지금까지 총 11호가 발행됐다.

별곡면 주민자치회는 이제 새로운 내일을 꿈꾼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둔산 월성봉에 철쭉단지를 조성했다. 충남도와 논산시의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방식이 눈길을 끈다.

“주민 대부분이 어르신이지만 매우 민주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우선 분과별로 주제를 정해 회의를 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례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거죠. 3단계 회의구조를 통해 모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 과정을 거쳐 조성한 철쭉단지는 월성봉 정상부터 헬기장 아래 빈터까지 총 4.1ha 규모다. 이곳에는 철쭉 16만 1,500본이 식재되어 있다.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5월이면 분홍빛 철쭉이 장관을 연출한다. 이와 함께 월성봉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익도모와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고, 정자, 목교, 돌계단, 벤치 등 편의 시설도 조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별곡면 주민자치회는 ‘제14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둔산 철쭉단지는 연분홍 철쭉이 솜사탕처럼 넘실대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철쭉단지가 힐링 관광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별곡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5월 ‘논산 대둔산 철쭉제’를 진행하니 많이들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린아파트

당진시 송악읍 이편한세상아파트



우리나라 주택 유형 중 50%가 아파트라고 한다.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개인의 삶을 보장 해준다는 측면에서 아파트는 분명 괜찮은 주거 형태다. 하지만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어쩐지 씁쓸하다. 당진시 송악읍 이편한세상아파트는 그런 씁쓸한 현실과 조금 거리가 멀다.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공동의 문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한다. 나아가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의미에서 2년에 한 번 자발적으로 '한가족 축제'를 진행한다. 이광목 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서로 인사는 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가족 축제로 소통과 화합

오룡산 끝자락에 기대어 있는 송악읍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지난 2010년 입주를 시작했다. 전체 10개동, 811세대다. 규모로 보면 제법 큰 아파트 단지다. 송악읍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주민들 간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층간소음, 이웃 간 대화단절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 1기에서 ‘한가족 축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하고, 그런 축제의 장을 통해 서로 어울리다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다못해 서로 인사라도 하면서 지내자는 취지였습니다.”

논의 끝에 한가족 축제는 2년에 한 번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 축제를 진행한 건 2012년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시골 마을에서나 가능한 줄 알았던 ‘마을잔치’가 아파트에서 열린 덕분인지 많은 주민이 참여했다. 2회차였던 2014년에는 약 600세대가 참여했다.

“민요 한가락, 율놀이, 떡메체험, 시립합창단 공연, 통바베큐와 맥주 시식, 난타공연, 어린이 사생대회, 주민 장기자랑,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모든 주민이 즐거운 마을 잔치였죠.”

갑박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웃 간 정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크게 호응했다. 실제 2014년 축제가 끝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축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60% 이상이 “한가족 축제가 친목과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했다.

기대했던 것처럼 한가족 축제를 계기로 송악읍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은 퐁퐁 뭉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한가족’이라는 연대감을 형성한 거다. 이러한 연대감을 토대로 아파트 주민들은 새로운 차원의 공공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송악읍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은 2014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시작하며 친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비 중 60%가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라 한다.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연환경 오염을 막는 대의적인 목적도 물론 중요 하지만, 관리비 중 60%가 에너지 비용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내 친환경·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활동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에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컨설팅을 통해 매월 22일 불끄기 행사, 관리비 절감 캠페인, EM 세제 만들기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2013년 대비 2014년 전기절약 캠페인을 실시한 후 각 세대 사용 전력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마중물 사업 예산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등 공공 생활 부분에 대한 전등을 전부 LED로 교체한 거다. 이를 통해 엄청난 에너지 절감을 이뤄낼 수 있었다.

“LED 교체를 통해 아파트 운영에 대한 관리비용이 줄었고, 이는 실제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좋아했죠. 이런 문제들이야 말로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해 적어도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만큼은 솔선수범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로 만드는
행복한 동네

변화하는 마을 복직이는 사람들

천안시 문성동 주민자치위원회



문성동은 천안시 중심에 있는 원도심이다. 인근에 천안역과 천안버스터미널이 있고, 주변에 오래된 변화가가 형성돼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문성동이 예전처럼 활기있는 마을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는 도심재생지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도심재생지역사업을 통해 마을을 재건하고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마을

천안시 문성동은 시가지 중심에 있는 도심지역이다. 천안에서 가장 변화한 천안고속버스터미널과 천안역이 가까이에 있다. 공공시설도 밀집해 있어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 이렇듯 문성동 마을 곳곳에서는 찬란했던 원도심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문성동이 옛 명성을 되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2년 전부터 오래된 건물과 거리를 재정비하는 도심재생지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심재생지역사업으로 문성동 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천안시청을 재정비하고 상권 침체화로 어두웠던 거리에 불을 밝히고 있다. 문성원성지구와 성황원성지구, 문화지구를 포함해 5지구가 현재 재개발 중이다.

인근에 12개 대학 캠퍼스가 있는 점을 살려 상권을 밝고 젊은 분위기로 꾸미고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동네를 재정비하고 있다. 나아가 청년몰로 청년 창업을 지원해 평균 연령이 높은 문성동에 젊은 세대를 유입할 계획이다.

문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전경이 변하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에도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시니어 에어로빅, 제과제빵, 서예, 스포츠댄스, 요가, 한국무용, 일본어, 통기타, 헬스 등 9개 프로그램을 주민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많게는 120명 적게는 25명의 주민이 참여한다.

2015년부터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하여 기존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을 발전시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모인 주민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문성동 소재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제과제빵 과정을 수강한 주민들로 구성했다. 제과제빵 수업을 수



료한 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결혼가정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빵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마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과제빵을 마을기업화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주도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안정적인 삶이 행복한 마을을 만든다

“잘 먹고 잘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이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문성동에 사는 모든 주민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문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덕재 회장의 말이다. 문성동에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난 점을 착안해 이주민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든 주민이 화합하는 마을을 만드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목표입니다. 다문화 음식특화거리는 다문화인들이 고향의 음식을 즐기는 것은 물론 내국인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성동은 다문화센터와 함께 매년 5월 다문화 축제를 크게 열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축제와 다문화 음식특화거리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도 세웠다. 다문화가정이 마을주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마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한국어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원도심인 문성동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천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과 연계해 제품 포장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유치한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문성동에 가장 알맞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제과제빵, 다문화 음식특화거리,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옛 정취를 살려 예전처럼 사람이 북적이는 문성동을 만들어야죠.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마을 모습이 변하는 만큼 주민들도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꽃피는 마을

당진시 송악읍 동광아파트

동광아파트는 공단 인근에 위치해 정주 여건이 부족하고 동네라기엔 다소 삭막한 분위기였다. 몇몇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중 최지희 입주자대표회장이 팔을 걷어 붙이면서 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공동체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평소 동네 일에 무관심하던 주민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고 자발적으로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아파트'라는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다.





변화의 물꼬를 트다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동광아파트는 655세대 2,000여 명이 거주하는 단지로 2007년 4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가 자리한 곳은 공단 지역으로 입주 당시부터도 이곳을 포함해 세 개 단지만이 존재했다. 지금은 분양이 완료됐지만, 처음에 임대아파트로 시작했고 인근에 있는 현대제철과 협력사 숙소로 쓰이는 세대가 많았다. 직원 숙소만 해도 190여 세대에 달했다. 그러한 단지 특성상 여느 아파트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기보다는 회사 숙소로 잠깐 머물다 가는 세대가 많다 보니, 정을 나누는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주민들 사이가 데면데면한 경우가 많았다. 시설 또한 인근 아파트에 비해 부족했다. 놀이터는 모래로 되어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불편한 데다 노후화도 빨리 이뤄졌다.

2007년에 첫 입주해 8년간 거주해 온 입주자대표회의 최지희 회장은 이런 점들에 줄곧 문제의식을 느껴왔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느껴지는 문제가 많았어요. 직원 숙소가 많아 밤 시간에 취객도 많았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끼리 모

여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었어요. 놀이터 환경도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옆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했는데, 그쪽에서도 달걀지 않아 하고요. 동네가 아파트랑 상가뿐이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랬던 아파트가 조금씩 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생기면서부터다. 최지희 회장을 필두로 회원들이 힘을 모아 2013년에는 아파트 경로당을 만들었고, 2014년에는 관리사무소 동 2층에 책상과 의자만 있던 공간을 공사하고 책 3,500여 권을 기증받아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다.

“송악 지역에 어린이, 청소년,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시설이 전무해 입주민들이 문화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 끝에 입주민들이 합심해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죠. 개관 준비부터, 운영 프로그램 선정, 공간 구성까지 모두 입주민 참여로 이뤄졌어요. 아이들도 도서관에 책을 읽거나 숙제하러 오기도 하고, 엄마들도 이곳에서 취미활동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임홍식 관리소장과 최지희 입주자대표회장



주민 참여로 생기를 찾다

임흥식 관리소장이 부임하면서 부터는 단지 내 변화에 불씨가 당겨졌다. 관리소장으로 오랜 경력을 지닌 그는 처음 이곳에 부임한 뒤 정주 여건이 부족한 점을 안타깝게 여겼고, 최지희 회장과 힘을 모아 여러 변화를 일구어 나갔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었어요. 살펴보니

예전부터 여러 민원이 많았는데도 건설사 관리팀에서 해결을 잘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최지희 회장님과 함께 지자체 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금을 확보해서 조금씩 하자보수를 해나갔어요.”

이렇듯 함께 힘을 모아 주거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 결과, 2014년에는 당진시에서 실시한 ‘아름다운 아파트 공모’에서 2등을 거머쥐고, 녹색아파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상금은 또다시 아파트 시설을 보수하는 데 쓰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받아 지자체에서는 동광아파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컨설팅을 진행하며 시범공동체 육성 주안점을 베풀시장과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주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모일 콘텐츠와 자원봉사자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고, 베풀시장은 2014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컨설팅 과정 중 현장 탐방도 진행했다. 12월 18일에 대전 서구 관저공동체와 석교동 알짬어린이도서관을 방문했다.

“관저공동체와 알짬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를 하고, 도서관도 순서를 정해 번갈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러웠어요. 저희 작은도서관은 사서 한 분이 자원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부녀회를 잘 조직해서 사서 도우미 참여도 독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베풀시장은 2014년부터 인근 초등학교에 작게나마 장학금 기부를 할 목적으로 시작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팔고, 물물교환을 하기도 하고, 부녀회를 주축으로 뜨개질을 하거나 수세미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동네자치 컨설팅을 시행하면서는 지금까지 해온 베풀시장에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식으로 발전시켜갔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아파트

“올해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연계하고 강화해서 지속해 나갈 계획이에요. 하반기에만 세 번 베틀시장을 열고요. 작은도서관에는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아이 어른 모두가 볼 수 있는 영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상영하려 해요. 그리고 주민워크숍도 계획했어요. 지난 컨설팅 때 참여했던 분들이 내용이 좋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면서 한번 더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2기 주민워크숍 때는 1기 때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주로 진행하려고 해요. 또 하나 새로이 시작한 건 청소년 문화 유적지 탐방이에요.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종종 있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없었거든요. 지난 10월 8일에는 첫 일정으로 부여와 공주를 다녀왔어요.”

시범공동체에 선정되어 컨설팅과 직접 사업도 진행하면서 동광아파트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세대별로 아래윗집 정도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컨설팅을 진행하며 몰랐던 주민끼리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주민들끼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다보니 인사하고 지내는 일도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마을공동체 등에 함께 현장탐방을 다녀오면서 아이 키우는 엄마끼리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겼다. 엄마들 간에 연대가 끈끈해지다 보니 아이를 키우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됐다.

“처음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방송이나 현수막 등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처음엔 주민이 잘 모이지 않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 나온 분들이 재미를 느껴서 또 나오시고, 입소문을 타다 보니 점점 주민 참여도가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엄마들이 행사 도우미로 많이 참여해준 게 정말 좋았어요. 예전에



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고 보니까 한 분, 두 분씩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주려는 분들이 늘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껏 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일구어 온 최지희 회장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직도 욕심이 많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을 생각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마을공동체가 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제가 복운3리 부녀회장 일도 하면서 이주여성들과 한글공부교실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부녀회가 다같이 다문화 음식 만들기 같은 행사도 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아파트가 되었으면 해요.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이웃집 아이가 돌아다니면 누구네 아이인 줄 알고 챙겨주는 가족같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문화와 예술로 만드는
행복한 동네

홍도화 따라 퍼지는 따스한 마음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홍도화를 테마로 축제를 개최한다. 4월 말이면 붉은색 매력의 홍도화 물결이 마을을 뒤덮는다. 활짝 핀 홍도화 꽃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올해에도 축제를 전후로 1만 명이상이 마을을 다녀갔다. 몇 해 전에는 충청남도로부터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56세대, 총 100명 남짓이 살고 있는 소박한 마을이 이처럼 전국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마을 주민들의 따스한 감성 덕분이었다.

전국 유일의 홍도화 축제

홍도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짹짹한 인삼과 약초 향기가 금방이라도 느껴질 것처럼 마을에 인삼과 약초밭이 퍼져있다. 그런 만큼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인삼농사와 벼농사를 짓는다. 크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다. 무탈하다.

마을 주변으로는 폭포의 전시장이라고 불리는 십이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또 금산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명산 진약산이 마을을 감싸 안아준다. 한마디로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마을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을 곳곳에 홍도화가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마을 주민들은 홍도화를 눈여겨봤다.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다. 땅 놀리면 벌 받는다고 논 귀퉁이에도 콩을 심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에도 홍도마을 주민들은 붉고 예쁜 홍도화에 마음을 내어줬다. 마을이 좀 더 예뻐지면 하는 소녀 같은 감성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자라던 홍도화 씨앗을 따서 마을길에 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며 마을에 홍도화 물결이 퍼지게 된 거다. 김현배 이장은 그저 “꽃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라고 말한다.

마을에 홍도화 물결이 퍼지던 무렵부터 주민들은 봄마다 마을잔치를 벌였다. 농사로 바쁘지만 잠시잠깐 예쁜 꽃이라도 보면서 쉬어가자는 의미였다.

“그 마을잔치를 시초로 해서 지금의 홍도화축제를 하게 된 겁니다. 봄마다 홍도화 꽃이 만개할 무렵이면 마을잔치를 벌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시 면장님이 아예 홍도화축제를 열어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홍도화축제가 올해로 9회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4월말에 열리는 홍도화축제는 이제 금산군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는 홍도화 산촌가요제, 초대가수공연, 민속놀이 경연, 홍도화길 꽃마차 여행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사계절 볼거리 가득한 벽화마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한 건 작년부터다. 그간 축제를 진행하며 어수선해진 마을을 재정비하고, 내실을 다지자는 취지였다. 작년에는 마을 벽화그리기를 실시했다.

“홍도화 덕분에 많은 관광객이 홍도마을을 방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 홍도화 말고는 볼거리가 마땅치 않거든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지는 생각에 마을 벽화그리기를 실시한 거죠. 인근에 있는 중부대학교 미술과 학생들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벽화를 그렸습니다.”

벽화는 제기차기, 그네뛰기,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를 테마로 조성했다. 관광객을 위한 배려였는데 조성해놓고 나니 마을 주민들 반응이 더 좋

다. 마을 어르신들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해줘서 보기 좋다고 말한다.

올해 지원받은 예산으로도 마을 벽화그리기를 실시한다. 작년엔 마을의 일부분만 벽화를 그렸다면, 올해에는 마을에 전체적으로 벽화를 그릴 예정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그려놓은 벽화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워낙 좋았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마을에 벽화를 그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을의 고민 중 하나가 사계절 볼거리였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봄에만 우리 마을을 방문해주시거든요. 여름과 가을, 겨울에도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벽화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무슨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많은 분이 우리 마을에 방문해서 힐링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만들어낸 기적

서천군 서면 주민자치회



문화예술 활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방대하다.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은 큰 도움이 된다. 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발현되는 다양한 상상력이 때때로 개인의 삶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서천군 서면 주민자치회가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서천군 서쪽 끝 해안에 자리한 서면에는 농업인과 어업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인이 모여 산다. 행정적으로 보면 24개리, 2,400세대, 5,000여 명이 서면 소속으로 다양한 삶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합 지역이다.

또 한편으로 서면에는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량리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69호)을 비롯해 흥원항, 성경 전래지 기념관, 춘장대해수욕장 등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서면 주민자치회의 중장기 비전은 여기에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 지라는 특성 때문에 개인의 삶이 바쁜 주민들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것, 장기적으로는 주민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서면을 만들어내는 거다.

2013년 처음 출범한 서면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고민과 소망을 담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조병진 서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다.

서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통기타, 난타, 서예, 노래교실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일주일에 한 번 전문 강사들이 와서 지도한다. 보통 한 프로그램에 20명 이상 참여할 만큼 반응이 좋다.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춘장대 여름음악회**

2013년부터 지원받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은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에 큰 도움을 줬다.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이 바뀐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이전보다 더 화합할 수 있었고, 공동체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 또 주민자치회도 자발적인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였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변화한 건 주민 개개인들의 삶이다. 농촌이라는 지역특성상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러한 갈증을 풀어줬다.

“난타든 통기타든 평생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주민 개개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서면의 대표 축제인 춘장대 여름음악회도 2014년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문화예술 프

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참여하는 주민들이 차츰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춘장대 여름음악회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춘장대 여름음악회 때 자신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러한 축제를 통해 주민들 간 화합도 할 수 있고요. 나아가 여름에 춘장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춘장대 여름음악회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되다 보니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여유도 생겼다. 서면 주민자치회는 자체 기금으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미용 봉사가 바로 그거다. 서면 주민자치회는 1년에 세 차례 마을을 지정해서 미용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읍내까지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머리카락도 깎아드리고, 염색도 해드리는 봉사 활동입니다. 엄청난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나마 봉사함으로써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관심 가져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거죠. 분명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활동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과 미용 봉사 활동 등은 서면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함께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 거다.

“이제는 주민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니 서면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겠죠.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서면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것. 그거면 더 바랄 게 없죠.(웃음)”





주민자치,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잇다

서천군 판교면 홍림2리 홍림마을



다랭이밭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가을이면 반딧불이가 반짝이며 밤을 밝히는 마을. 50여 명의 주민이 소박하게 모여사는 홍림마을이다. 교통이 불편하고, 가구들이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문화를 누리거나, 화합하는 것마저 쉽지 않았던 이곳은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며 점점 시골벽적인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주민영화제, 마을을 잇다

서천군 판교면 홍림2리 홍림마을은 희리산 자연휴양림과 홍림저수지를 접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단절된 마을이다. 마을은 5개 자연마을로 나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27가구 50여 명 정도로 그마저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을 사람끼리의 왕래도 쉽지 않다. 마을 내 농지규모가 적어 경제활동이 부족하고 소득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곳은 보기 드물게 인공적인 요소가 많지 않고 자연경관이 우수하게 보존된 아름다운 마을로 주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다. 논두렁이나 개울에서는 가재나 우렁을 쉽게 볼 수 있고, 가을이면 새까만 밤그늘에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아름다움 덕분인지 최근에는 귀농, 귀촌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병선 부녀회장은 “주민 중 절반 정도가 고령 인구인 데다 외부 문화와 단절된 이곳 주민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다. 홍림마을은 그런 바람으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이종철 이장과 신병선 부녀회장이 앞장섰다.

“이곳은 버스를 타려면 30분 정도 걸어나가야 할 정도로 교통이 좋지 않아요. 전체 마을이 5개 자연마을로 나뉘고 한 마을에 3~4가구가 있는데 이마저도 서로 푹푹 떨어져 있어요. 자연히 자주 모이기도 힘든 환경이죠. 할머니 혼자만 사시는 집도 있고 해서, 자주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같이 영화를 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농한기인 겨울 때만이라도 모여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지난해 11월에 열린 두 번째 주민자치 컨설팅 때 이러한 고민이 반영되어 작은 주민영화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주민영화제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등을 사업비로 구입하고, 마을 주민이 노트북을 기증함으로써 홍림2리 마을회관

에 '작은영화관'이 꾸러졌다. 주민영화제는 한 달에 두 번씩 열렸다. <국제시장>,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등 어르신들이 공감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상영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8월에는 서천군미디어센터에 '찾아가는 영화관'을 신청해 정자나무 앞 야외무대에서 한밤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영화를 보러가는 건 꿈도 못 꾸고 늘 집에서 드라마만 봤던 분들이라서 '살다가 이런 일도 다 있네.' 하며 고맙다고 하시고요. 주민영화제를 계기로 자주 모이다 보니 주민 간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지금까지도 매달 모임을 가져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마을

올해에는 주민들 모두가 6개월 간 충남학 강의를 듣고, 마을 유희부지에 해바라기를 심는 등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알차게 이어갔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의 향토문화연구원에서 하는 충남학 강의를 29명 주민이 수료했어요. 주민 대부분이 참여한 거죠. 동네자치 역량을 키우고 싶다고 군청에 문의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 주셨어요. 충남학 강의를 들으며 마을 땅 밟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니 이곳에 수십년 살면서도 마을 끝에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을 지명, 전설 등을 오래 사신 분한테 들으면서 걷고, 풀도 뽑고, 쓰레기도 줌고, 같이 밥도 먹고 했어요. 덕분에 자주 모이게 돼서 좋았죠.”

주민들이 자주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러던 와중 마을에 있는 폐철로부지에 해바라기를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아졌다. 이미 유희공간에 코스모스, 메리골드 등을 심기도 했던 터였다. 4월부터 시작해 5월 초까지 주민들이 힘 모아 한달 여에 걸쳐 600평 규모의 해



바라기밭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7월 30일에는 해바라기 축제를 열었다. 축제 때는 서천예총과 연계해서 국악팀, 팬플루트 연주가 등을 불러 공연을 했다. 마을회관에서 1km가량 떨어진 해바라기 동산까지는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며, 마을 어른이 직접 찢 옥수수를 나눠주고 마을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축제에는 주민과 관광객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여했다.

“요즘은 해바라기밭을 활용해서 마을 소득을 올리는 일을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 9월 26일에는 경남 함안에 있는 강주 해바라기마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해바라기를 수확해서 타작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려고요. 지난번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해바라기씨를 타작하고, 기름을 짰는데 아직은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판매할 기름이 소량밖에 안돼요. 앞으로 해바라기씨로 기름을 짜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싶어요.”

김종철 이장과 신병선 부녀회장이 앞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민들이 잘 따라준 덕에 흥림마을은 동네자치 역량을 점차 갖추고, 마을에 나날이 생기가 돌았다. 신병선 부녀회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부자가 되는 마을을 꿈꾼 적은 없어요. 마을이 워낙 고령화가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농촌에 살며 혼자 고립되다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와서 어울리는 마을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을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꿈이 크가요?(웃음) '난 좋은 마을에 살고 있다', '이곳에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차츰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주민 스스로 만드는 예술마을

홍성군 홍북면 중계2리 홍천마을



홍천마을은 용봉산과 백월산 중간에 자리한 아름다운 마을이다. 고암 이응노 화백이 나고 자란 생가가 터잡고 있어 매년 많은 사람이 찾는 문화 마을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는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만드는 일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에 더해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풍물패 결성, 이야기가 있는 문패 만들기 등을 통해 생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화하고 있다.

풍물로 만들어 가는 주민 화합

“홍천마을은 약 150가구가 있어서 시골마을치고는 커요. 리 단위로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윗마을, 아랫마을로 마을이 나뉘어요.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교류도 잘 안되고요. 그래서 다같이 풍물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하면 조금이라도 단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죠.”

홍성군 홍북면 중계2리 양주명 이장(주민대표)의 말이다. 중계2리 홍천마을은 홍북면의 가장 왼쪽, 홍성군의 북쪽에 자리하며 오른쪽으로는 용봉산이 감싸고, 남서 방향으로는 백월산이 지키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다. 홍천마을에는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의 생가 기념관이 터잡고 있어 매년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응노 화백은 17세 때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자라며 그림에 뜻을 품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천마을은 이렇듯 마을이 지닌 예술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3개년 계획의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 마을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관심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고민이 제기됐다. 이는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동네자치’를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총 150여 가구에 400여 명이 거주해 작지 않은 규모인 홍천마을은 평소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일도 어려웠다.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풍물 배우기 모임을 만들자고 결정한 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였다.

“30여 년 전 마을에 풍물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풍물을 하셨던 어르신에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본부터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를 초빙해 15회 강습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대여섯 명 정도 주민이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30명 정도로 참여 인원도 점점 늘었어요. 풍물강습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점점 높아져서 강습이 끝난 뒤에는 풍물패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강습이 끝난 후에도 풍물연습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풍물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연습을 한다. 오는 11월 12일에 있을 이음노마을 예술잔치에서는 그동안 갈고닦은 풍물 실력을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를 갖는다. “그동안 잘해왔는지 점검도 하고, 평가도 받는 자리죠.”라고 말하는 양주명 이장의 목소리는 조금 들뜬 듯하다.

마을지도와 특별한 문패 제작하기

홍천마을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과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견학, 모임을 진행하며 마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양주명 이장은 말한다.

“최근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 왔어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 특히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들을 구경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많아 좋다고 해요.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점차 시야도 넓어지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아야겠다고 말씀들 하세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반상회도 하고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만나야 하고, 그런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합의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 주민 간 화합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홍천마을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마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설치할 마을지도와 문패 제작을 하는 것이다. 근래에는 문패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예술마을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집집마다 이야기가 있는 문패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름 하나만 쓰인 문패는 단조롭잖아요. 각 가구마다 개성을 살려서 모든 가족의 이름을 넣는다면, 특별한 문구를 넣어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에 목공소가 있는데 그곳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마을지도도 예쁘게 제작해서 마을입구에 표지판처럼 세워 두려고 해요. 집배원 이든, 손님이든 누가 와도 집을 쉽게 찾을 수 있게요.”

문패 제작은 150여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천마을만의 개성 있는 문패 만들기를 위해 주민들은 틈 나는대로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를 갖는다. 양주명 이장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하며 마을이 조금씩 변화하고 주민들이 동네자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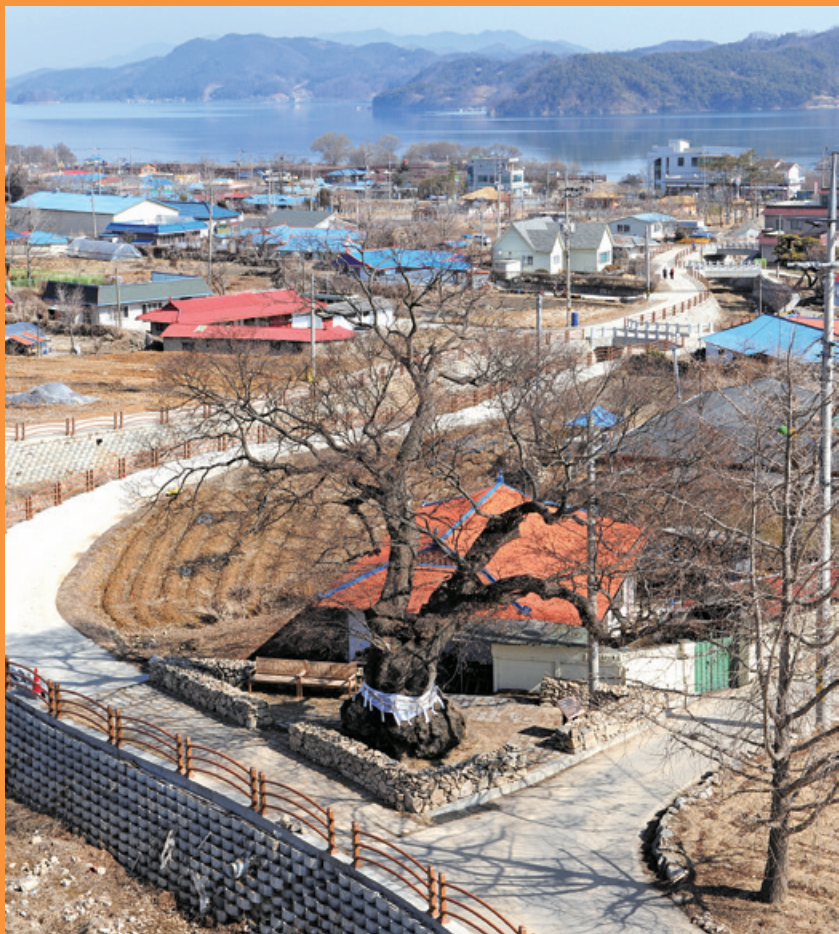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 동네자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는 마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동네자치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느껴지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앞으로 동네자치를 통해 마을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으로 만드는 풀뿌리 주민자치

예산군 대흥면 주민자치회



예산군 대흥면의 주민자치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다. 대흥면은 2013년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지역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꾸리기 시작했다. 같은 해 시작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 안전지도 만들기, 농촌체험마을 추진, 의좋은 형제 작은음악회, 마을소식지 발행, 사랑의 집수리 등은 약 3년 간 대흥면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직접 일군 성과들이다. 근래에는 대흥면의 주민자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단체들도 부쩍 늘었다.

마을안전, 우리가 지킨다

예산군 대흥면은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수가 저장돼 있는 곳이자 전국 제일의 낚시터로도 유명한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동서로 양분되어 있다. 예당저수지를 비롯해 임존성과 동헌, 이성만호제비, 봉수산자연휴양림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고장으로 사람들의 발길도 잦은 곳이다. 한편 대흥면은 ‘의좋은 형제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성만, 이순형제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실제로 살았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흥면의 또 다른 이름인 ‘의좋은 형제마을’은 이런 역사로부터 비롯했다.

자연,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이 고루 잘 갖춰진 대흥면은 그동안 대흥슬로시티, 영농법인 등을 추진해오며 주민자치 경험을 조금씩 축적해 왔다. 2013년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지역에 선정된 것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일구는 첫걸음이 됐다.

“예산군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곳은 대흥면이 유일합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자치회가 발족됐고, 30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면에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각종 마을 일에 솔선수범하는 분들로 구성이 됐어요. 주민자치회는 마을복지, 마을기업, 마을자산, 안전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각 분과에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여 상의를 하고 어



편 방식으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등을 늘 고민합니다.”

대흥면 주민자치회 정종열 회장의 설명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육성 사업은 주민자치회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구체적인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안전마을 만들기, 농촌체험마을 추진, 의좋은 형제 작은 음악회, 마을소식지 발행 등 크고 작은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3년에 걸쳐 차츰 윤곽을 만들어나갔다.

“대흥면에는 파출소가 없어요. 가뜰이나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둑 등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순찰대를 조직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 순찰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또 도로 같은 위험지역에는 안전 표시판을 제작해서 쉽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집에는 벨 장치를 만들어서 위험 상황일 때 누르면 112에 바로 연결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모두 2013년부터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주민자치의 선례가 되다

농촌체험 마을사업은 앞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 마을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기 위해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해설사를 양성하는 일이 관건이었다. 수차례에 걸친 컨설팅과 주민자치회의 기획회의, 선진지 견학 등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4년 7월 본격적으로 ‘의좋은 형제마을 체험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농촌체험마을

행사는 슬로시티와 형제마을영농법인 등과 연계해 올해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해요. 한 달에 두 번씩 시골 장이 서는데, 그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요. 떡메치기, 두부 만들기 등 체험도 하고 있어요. 또 대흥면에는 농산물 하우스 재배하는 곳이 많은데,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방울토마토 따기 체험, 옥수수 따기 체험 등도 진행합니다. 전국에서도 농촌체험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입소문이 나서 서울, 강원, 대전, 전라도 등 각지에서 일년에만 일고여덟 단체가 방문하고 있어요.”

2014년에는 자치사업 중 하나인 사랑의 집수리와 함께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 교체, 집 수리 등을 하고, 오후에는 주민참여 공연, 외부 공연팀 초청 등으로 400여 명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회를 열었다. 이렇듯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결과, 2014년 12월에는 주민자치회 정종열 회장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변화가 많이 생겼죠. 이전보다 단합도 잘 되고요.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마을을 꾸려가는 역량이 생긴 것 같아요. 주민들도 이전과 달리 대흥면의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현재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봉수산을 가로지르도록 계획이 되어서 마을환경을 저해하게 됐는데, 이에 관해서도 노선변경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저지하는 활동도 3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행동을 해야 주변 사람들도 따라오잖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잘 협조해 주고 따라와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멜로디 따라 부는 따스한 바람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초막골마을



상하리 초막골마을은 80여 가구 정도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다. 논과 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령인구가 많은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장수마을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2015년부터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하면서는 각종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골벽적인 마을이 되고 있다. 오카리나라는 작은 악기가 단조롭던 마을에 따스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다

“이곳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마을이에요. 옛날 50~60년대에는 전부 야산이고 논밭은 조금밖에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아버지가 ‘밖에 어떤 집에 연기가 나나, 안나나 한번 보고 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연기가 안 나면 밥을 못한다는 뜻



이니까, 심부름으로 밥을 갖다주러 갔다오고 그랬죠.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산지를 개간하면서 사람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했어요. 80년대에 들어서 복합영농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왔죠.”

삼교읍 상하1리 김세환 노인회장이 마을의 역사를 죽 읊는다. 상하리(上

下里)는 본래 덕산군 대조지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갈리와 하갈리의 이름을 따라 상하리라 하고 삼교읍에 편입됐다. 그 중 삼교읍 상하1리 초막마을은 현재 73가구 14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의 3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점점 생기를 잃고 있었다.

그랬던 마을이 조금씩 복적이기 시작한 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마을에 무궁화 심기, 벚꽃길 조성, 백일홍 심기 등 마을경관 조성사업을 비롯해 마을단위 사업들을 하나둘 진행하면서 주민들 또한 마을을 가꾸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5년 충남도청에서 주관하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선정된 뒤에는 마을에 점점 활력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함께 오카리나를 배우고, 매일 주민 생일잔치를 열고, 오카리나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을 이루어내기 시작했다.

오카리나와 작은음악회로 만드는 동네자치

상하1리는 이전에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다양한 마을 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었지만, 기존 프로그램에서 충족하지 못한 문화활동과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욕구가 주민 사이에 있었다. 마침 2013년부터 몇몇 주민들이 배우기 시작한 오카리나 연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고,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몇 년 전에 공주대학교 평생교육학습원에서 오카리나 연주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받았죠. 그 교육이 끝난 후에도 배달강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2013년에 10



명 정도 인원이 2년 동안 오카리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게 되면서 계속 아쉬움이 남아있었어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시작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주민 화합을 위해 오카리나를 계속 해서 하면 좋겠다고 결정하게 된 거죠.”

지난해 11월, 주민자치 컨설팅을 진행하며 오카리나 배우기와 노래교실, 마을 음악회 개최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정해지기에 이르렀다. 12월초부터 오카리나 시범수업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면서 오카리나 교실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오카리나 배우기가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후 오카리나 배우기와 노래교실은 매주 1회씩 꾸준히 이뤄졌다. 올해 1월 21일에는 마을 주민 생일잔치와 작은음악회를 열며 그동안 같고닮은 오카리나 연주 실력을 처음으로 주민 모두에게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 간 화합이 점점 더 잘 된 것 같아요. 초기에 진행한 컨설팅과 교육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나가다 보니 우리 손으로 ‘동네자치’를 한다는 의미도 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오카리나 배우기, 노래교실, 월별 생일잔치 등이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살기 좋은 마을

오카리나 연주 교육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 노래교실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며 마을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수업 때

마다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참여하며, 아주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크다. 이전보다 더 재미와 활력이 생겼으며 빠짐없이 오는 주민도 있다. 때로는 오카리나 연주팀과 노래교실팀이 한 자리에 모여 합주 연습을 하기도 한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이 더 갖춰지면 언젠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카리나 연주와 합창을 결합한 공연도 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8일에는 오카리나프렌즈라는 단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마을을 찾아와서 공연도 하고, 주민들에게 1대1로 오카리나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때 방문 이후로 주민들도 고무돼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당시 트로트 가요 한 곡을 배웠는데, 더 연습을 해서 공연 때도 보여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연말에는 또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카리나 연주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3년동안 진행해 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참여 주민들이 오카리나 합주 공연을 할 예정



이다. 한편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마을박물관 만들기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을박물관 공사가 시작됐어요. 마을박물관은 마을이 처음 생길 때부터의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마을 주민이나 마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후손들한테도 마을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고요.”

김세환 노인회장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마을이 점차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란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사는 동안 서로 잘 화합하고 보듬으며 산다면 좋겠다.

“오카리나 배우기와 작은음악회를 하면서 나이 많은 주민들도 이전보다 한층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을과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졌고요. 요즘은 우리 마을에 새롭게 들어와 살려고 하는 분들도 점점 생기고 있어요. 지금은 73가구 정도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이사오실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80가구 정도까지 늘 것 같아요. 마을이 살기 좋아지니까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뿌듯하죠. 앞으로는 새롭게 이주해 온 주민들과 기존 마을 주민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하나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이요.”





마을과 일상에 예술이 번질 때

태안군 이원면 내2리 만대마을



태안반도 안에서도 가장 끝에 자리한 만대마을, 그 지형을 살펴보면 얼핏 한반도를 축소해 놓은 듯 닮아있다.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태계 또한 작게 축소해 놓은 듯 다양하고 자연환경을 갖췄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 이어질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정작 주민들은 소외되었던 작은 마을, 이제 주민들은 자신의 삶 속에 놀이와 예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댕겨오시유'

상징탑으로 하나되다

만대마을은 태안반도 북쪽 끝에 반도형 지형을 이루고 있는 땅끝마을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로림만, 갯벌과 항구, 해식에 등 다양한 환경을 곁에 두고 있다. 마을회관 앞바다에는 해삼양식장과 독으로 이뤄진 인공해안이 있고, 반도 끝부분에 있는 만대항 인근에는 굴양식장과 치어양식장 등이 있어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만든다. 이곳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춘 덕분에 농업과 어업이 어우러져 있다. 한편으론 인근에 만리포, 모항 등 해수욕장과 항포구가 밀집돼 있고, 솔향기길·용난굴·여섬·삼형제바위 등 곳곳에 마을 문화재도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을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대마을은 2007년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큰 피해를 입으며 어려움





을 겪었다. 또 2007년 이후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바닷가 근처 오솔길이 입소문 나 ‘솔향기길’로 만들어지며 관광객이 많이 유입됐지만,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들은 소외 의식도 느꼈다. 2015년에 시작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서는 분열된 주민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마을리더를 육성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민 화합과 치유를 도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주민자치컨설팅을 통해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해 주도하는 마을 공동 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고, 마을에 거주하는 양승호 작가와 김영희 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상징탑 세우기’ 작업이 이뤄졌다. 한편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상징하는 로고도 만들었다.

“그동안 이렇다 할만한 마을 상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상징탑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댕겨오시유’라는 말을 새긴 상징탑은 축제 현장이나 만대항 등 어디나 설치할 수 있도록 가벼운 통발 소재를 사용해 이동형으로 제작했다. 마을 로고에는 땅, 바다와 풍요 등의 상징을 담았다. 또 조가비를 달아 만대마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과 주민에 대한 염원도 담았다. 현재 상징탑은 마을 입구이기도 한 마을회관 앞에 설치되어 마을을 찾는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주민이 진실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12월에는 마을창안대회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 당시 옛날에 만대마을만의 강강수월래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고, 이에 착안해 강강수월래를 응용한 율동을 만들고 배우는 활동도

했다. 주민들이 가사를 직접 만들고, 주민이 일상에서 가진 몸사위 등을 율동에 반영했다. 한편 이러한 아이디어 회의는 평소 해결할 과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주민들이 자신과 마을 일상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마을 행사들에도 올해부터는 행사 준비부터 진행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해맞이 행사, 대보름행사인 척사대회, 술향기복불복축제 등에서 예년보다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주민들 또한 더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었어요.”

만대마을 주민들은 이외에도 나오리생태예술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틈틈이 진행했다. 대형 현수막에 공동으로 그림을 그려 마을회관에 걸어놓기도 하고, 도예 배우기를 통한 자화상 만들기, 한글 교실 등을 운영했다.

“만대마을은 문화면에서 다소 뒤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 행사나 동네자치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공동 그림 제작이라든가 상징탑 만들기 등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곳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도 향유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요.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만대마을은 올해부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마을 지명찾기’를 해왔다. 마을 안과 바닷가 곳곳에 오랜 산 주민들만 아는 지명을, 하나 둘 찾고 모아서 지도를 완성한다. 연말까지는 충남형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사업 일환으로 주민들과 함께 조형물화한 벤치를 만들 생각이다. 김영희 전 이장은 많은 변화를 일군 만대마을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만대마을은 태안반도의 꼬트머리로,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지도와 닮았어요. 잘 살펴보면 이 조그만 지역에 한반도의 생태학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다행스럽게 개발이 안 되어서 아름다운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만큼 주민들도 순수해요. 덕분에 주민자치와 문화적인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수월했어요. 그동안은 소외 지역이라 주민들이 거의 일

만 하며 살고 무언가를 즐기고 스스로를 위해 살 시간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9월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금상도 받으며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함께 만드는
희망의 동네



일상에 문화가 깃드는 아파트

천안시 쌍용3동 주공9단지 아파트



쌍용3동 주공9단지 아파트는 도심 한 가운데 있지만 보기 드물게 이웃 간의 정이 있는 따뜻한 동네다. 마을도서관, 벼룩시장, 작은음악회 등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소소한 변화는 아파트에 조금씩 활력을 불어넣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하며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침체돼 있던 마을도서관 지킴이단에 활력이 생기고, 단지 내 상징인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만든 음악회를 여는 등 하나들 변화를 이뤘다.

주민이 함께 만든 느티나무도서관

쌍용동은 본래 천안군 군서면에 속했다. 1914년에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미라리(彌羅里), 쌍정리(雙井里), 용암리(龍岩里)를 합하여 '쌍정'과 '용암'의 머릿자를 따서 쌍용리라고 하여 천안군 환성면에 속하기도 했다. 천안시에 편입된 건 1973년이다. 이곳은 과거에는 한때 농촌 지역이었지만, 주변에 학교가 많이 설립되고 마을이 도시화된 지는 오래되었다.

쌍용3동 주공9단지 아파트는 총 1,080세대 3,000여 명이 거주하며 1998년 4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곳은 전형적인 서민아파트 단지로 초기에는 단지 내 조경 등이 미비하고, 문화적으로 즐길거리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에 몇몇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면서 교육 중심형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주민 중심의 취미클럽 활동이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편 단지 내에는 수령 약 330년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단지에 거주하는 마을활동가 중심으로 느티나무 살리기 운동이 이어져 오기도 했다. 백지영 마을 도서관관장과 이태섭 관리소장은 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주민 참여를 이끄는 마을 리더 역할을 하며, 동네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곳은 전형적인 서민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단지 내 분위기나 주민들간의 관계는 참 좋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며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로 서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는데, 이곳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근무하며 이런 아파트는 정말 드물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국공립화를 추진했고, 원래 피아노학원이었던 관리동 2층을 지난 2010년 12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마을도서관으로 바꾸어 1만 권 정도의 책을 마련했다.

마을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베틀시장, 마을작은음악회, 마을영화제, 청소년자원봉사교육, 느티나무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며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었다. 덕분에 지난해 9월에는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그린홈 으뜸아파트’에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다. 공동주택이지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협력해 관리하는 단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시설을 보수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침체된 마을도서관 살리기

이렇듯 그동안 주공9단지 아파트가 쌓아온 자치역량은 좋은 평가를 받아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데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컨설팅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주민자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초기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마을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생계문제나 동기부여 약화 등으로 마을활동가가 감소한 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저조 등으로 자치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다소 침체돼 있는 마을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참여 확대를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의 주안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활동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대전 관저공동체와 석교동 알짬 어린이 도서관으로 현장 탐방을 떠나며 벤치마킹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또 마을주민워크숍을 통해서 마을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갔다. ‘도서관 지킴이단’을 강화해 지킴이증을 발급했으며, 마을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지킴이 상점제도, 5개팀으로 세분화, 팀별 매뉴얼 만들기 등의 내용을 만들어 앞으로 도서관 지킴이단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지킴이단이 활성화됐고, 이것이 2015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의 주요성과로 꼽혔다.

문화가 숨쉬는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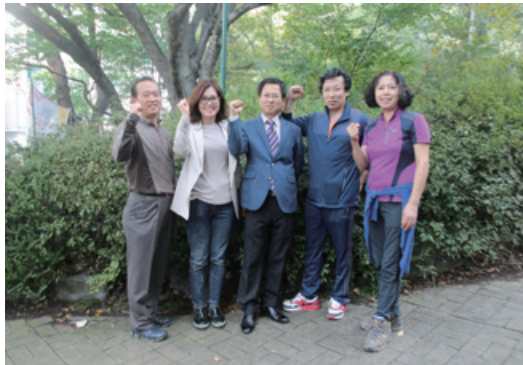


“올해는 태극기 바람개비를 만들어 단지 내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했어요. 그리고 야생화 심기도 진행하고요. 될 수 있으면 서양화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야생화가 아파트 곳곳에 자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산부추, 투구꽃, 사계원추리, 천안국, 아계라 텀꽃 등 총 5종을 심었어요. 또 9월부터 주 1회 캘리그래피 중급반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문화활동도 하고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



는 자리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앞으로는 단지 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음악회를 많이 진행하려고 해요.”

지난 10월 8일에 진행한 ‘주공9단지 화합한마당 축제’는 단지 내 거의 모든 주민이 모이고 참여한 올해 벌인 가장 큰 행사였다. 이날에는 마을 상징인 느티나무 아래에서 오카리나 연주, 가야금 합주, 풍물공연 등으로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고, 떡메치기를 하며 인절미를 나누어 먹기도 했다.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물찾기를 진행하고, 느티나무 인근 한켠에선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벼룩시장을 열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토대로 직접 연주하는 공연을 많이 마련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이날 행사를 함께 준비한 백지영 마을도서관 관장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다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던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첫 입주해서 18년째 살고 있는데, 아이와 엄마들이 많은데도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어요. 이렇게 마을행사를 통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앞으로도 저희 아파트가 주민들 스스로 같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에 의해서 동네를 이끌어 갔으면 해요.”

주공9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앞으로도 언제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행복하게 사는 아파트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한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도서관 등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캘리그라피 강좌도 들으며 일상적으로 자주 모이니까 주민 간 소통이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현관문 하나만 닫으면 단절되는 게 아파트인데,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진행할 음악회 등에서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마을도서관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킴이단을 잘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주민이 녹아드는 풍성한 마을

반포면은 공주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이다. 자연 경관이 우수한 데다 동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가, 서쪽으로 계룡면이 가까워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농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곳에 정착해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주민도 많다. 반포면을 찾는 관광객 수도 적지 않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은 여행객이 반포면 학봉리 도요지와 계룡산 도예촌을 찾는다. 그 덕에 반포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예쁜 공방과 카페를 쉽게 볼 수 있다.

도농복합지역인 반포면은 주민들의 직업 구성이 다양하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서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울려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반포면 주민자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해 이주민과 원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봉봉사랑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마을신문을 통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다른 생각을 나누며 마을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봉봉사랑방은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이 몸풀기 체조, 노래 배우기와 같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한다. 봉봉사랑방이 열리는 날이면 반포면의 오랜 역사와 숨어있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주민자치회는 이주민이 반포면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마을에 녹아들 수 있도록 원주민이 기억하는 반포면의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주 노래교실, 건강학, 건강기공, 풍물단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직종,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였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반포면 주민자치회는 더 많은 사람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과 발표회를 보기 위해 모인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주민자치회 회의 분위기도 활발해졌다.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어떤 안전이 나와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다.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은 사랑방

예로부터 사랑방은 집 안채와 떨어져 손님을 접대하며 마을 주민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놀이를 즐기는 장소다. 지금은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반포면에는 여전히 사랑방이 보인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 농한기가 되면 반포면 15개 마을회관에는 봉봉사랑방이 열린다. 사랑방이라는 이름처럼 주민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놀이를 즐기는 게 봉봉사랑방의 목적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반포면 주민의 연령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봉봉사랑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 강사가 마을회관을 찾아 수업을 진행한다.

봉봉사랑방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한 프로그램이 고착되면 주민들은 쉽게 흥미와 관심을 잃고 참여율이 저조해진다. 주민마다 취향과 관심사가 다르기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는 주민도 생긴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반포면 주민자치회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공부한 끝에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봉봉사랑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이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음 주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주민이 원하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간단한 몸풀기 체조, 노래 배우기, 게임 등 누구나 쉽게 따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독특한 강의보다는 친숙한 프로그램이 더 많다.

2017년부터 봉봉사랑방은 마을 어른들을 이야기꾼으로 양성하는 방식으로 심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시작한 봉봉사랑방에서는 마을의 역사를 잘 아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반포면 도자 유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이고 원주민들이 기억하는 마을의 재미있는 전설도 많다. 편안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 때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어른들이 봉봉사랑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 이야기를 꺼내는 점을 살려 잘 알려지지 않은 반포면의 이야기와 도자 유적이 풍부한 마을의 특징을 책으로 편찬할 계획이다.



마을에 스며드는 행복한 반포인

“주민자치 활동에 성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는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을을 사랑하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마을을 사랑하는 건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해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반포면 주민자치회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4~5년간 꾸준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박미옥 회장은 주민 스스로 모든 일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요구하길 바란다. 한정적인 예산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가장 원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포면은 마을신문 만들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월 4일에는 전문성을 높인 마을신문을 발간하기 위해 글쓰기와 사진 찍기 강좌를 열었다. 마을신문 기자 외에도 마을신문에 관심이 있는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했다. 최근에는 스토리텔링 전문가로 활동하는 주민 등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도 마을신문 만들기에 함께 참여한다. 앞으로도 마을신문을 위해 재능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든 반포면 주민자치회는 더 많은 주민이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참여프로그램을 창안해 주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



공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반포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살릴 방법을 찾고 있다. 이주민들도 반포면이 자신의 마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다. 프로그램 시간대도 다양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늘어날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공주는 풍부한 세계유산이 많은 곳입니다. 반포면은 그중에서도 도예문화가 많은 곳이고요. 공주와 반포면의 역사를 이해하며 아직은 낯선 한국문화를 배우고 마을에 쉽게 적응할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반포면에 사는 모두가 반포인입니다. 서로가 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산골오지에서 희망을 말한다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은고개마을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은고개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산골오지'다. 마을에 서서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는 건 산뿐이다. 산골오지다 보니 접근성도 취약하고 농토도 부족했다. 20여 세대, 30여 명 남은 마을 주민들은 점차 고령화되어 갔다. 먹고 살아가길도,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을 돌봐줄 이도 마땅치 않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은고개마을은 점차 고립되어가고 있었다. 그랬던 은고개마을이 몇 년 사이 변했다. 보령시에서 추진한 '제1회 깨끗한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대회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는가 하면, 2015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대회에서 '마을공동체 행복한마당' 마을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제2회 충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체험·소득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단체 은고개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양잠사업으로 희망을 보다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그렇지만, 은고개마을 역시 핵심적인 문제는 고령화였다. 점차 늙고 쇠약해지는 마을 주민들에게 겨울은 춥기만 했다. 산골마을에서 병원을 오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음현리 희망마을추진위원회 권영진 위원장은 “공동흡 형태의 소규모 요양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은고개마을은 보령 양잠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

“2013년 보령양잠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80% 이상이 참여해 출자금을 냈고, 종자돈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죠. 그 돈으로 2013년부터 마을 휴경지 3,500평에 뽕나무 2만 그루를 심고 누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차원의 양잠사업은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었다. 물론, 최종 목표인 요양원 설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욱 큰 걸 얻을 수 있었다. 마을 주민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과정, 함께 돈을 모으고 뽕나무를 가꾸고 누에를 키워가는 과정 등을 통해 마을 자치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마을이 활기차졌죠. 희망을 보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요양원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을 모으다 보니까 목표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마을 주민 모두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잠사업은 은고개마을에 희망을 선물했다. 현재 양잠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겨울철 주민들을 위한 무료급식, 마을회관 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차근차근 농가맛집 준비

2014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하며 마을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요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필요한데 우리 마을에서는 농가맛집과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양잠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해서 오디와 뽕잎 등을 활용한 음식

메뉴를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시범공동체 마중물 사업비로 농가맛집 운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마을 주민 중 두 사람을 한식 조리사로 양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농가맛집 운영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한 거죠. 농가맛집과 로컬푸드매장은 내년 정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지원금으로 요양사 5명을 양성했다. 추후 요양원을 운영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소중한 사람들이다.



은고개마을은 지원금으로 또 하나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마을 전통풍물단을 복원한 거다. 명맥이 끊어졌던 마을 풍물단 복원을 위해 주민 7명이 매주 두 번씩 모였다. 강사를 초빙해 전문적인 교육도 수료했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 풍물단 축제를 열었다.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

권영진 추진위원장은 줄곧 “공동홈 형태의 소규모 요양원 설립이 최종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잠사업을 시작하고, 농가맛집과 로컬푸드매장을 추진했던 모든 과정이 요양원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로컬푸드 판매망도 열고, 마을 저수지가 예쁘니까 소규모 공원도 만들어서 저수지 야간 개장도 하고, 휴경지가 많으니까 캠핑장도 열고, 또 전체적으로 마을이 꾸며지면 민박사업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하나씩 맡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일자리도 얻게 되고,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겠죠. 또 그렇게 얻어진 수익 중 일부는 요양원 운영에 쓰일 테고요. 요양원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산골오지 마을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은고개마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의 도움도 아닌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변화, 스스로가 만들어낸 희망이다. 산골오지 은고개마을은 스스로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을

아산시 온양5동 주민자치위원회



아산시 온양5동은 젊은 마을이다. 10~40대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마을 개발 사업이 한창인 온양5동으로 이주하는 젊은 세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마을을 이끌어갈 예비마을리더 육성사업을 기획했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성장하는 젊은 마을

아산시 중심에 있는 온양은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조선시대에 왕이 산책하던 길에서 온수가 솟아나는 걸 발견해 온 나라에 경사로 알려졌다. 세종은 안질치료를 위해, 세조는 피부병 치료를 위해 온양온천을 자주 찾은 것으로 유명하다. 1914년 온양과 아산, 신창 등 3개 군이 통합해 아산군에 포함됐다. 지난 2003년에는 온양이 온양1동부터 온양6동까지 6개 동으로 나뉘었다. 온양5동은 용화동, 신인동, 초사동, 기산동 등 총 4개 동을 관할한다. 마을 인근에 온양민속박물관과 온주아문, 온양향교, 당간지주 등 여러 문화유적과 유물도 간직하고 있다.

온양5동은 10~40대 젊은 세대가 주민 절반을 차지하는 젊은 마을이다. 도시 외곽지역이 개발되며 과수원이 많았던 마을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들어섰고 젊은 세대가 이주해왔다. 젊은 세대가 많아 온양5동에만 용화초교, 온양초사초교, 온양중, 온양용화고, 용화중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급부상

하는 미래교육타운이다.

온양5동은 아파트 단지과 다가구주택이 분리되어 있지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류가 많아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칠 정도로 주민자치가 무르익어 있다.

모든 주민이 행복해지도록

“온양5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해 단호박 사업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가전제품을 지급하거나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교복을 구입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인근 수경 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단호박을 주민들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판매하는 사람도 구입하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윤인희 회장의 말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온양5동 지역 소외 계층도 마을의 일원으로 함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랫동안

동안 주민자치 활동으로 단호박 사업을 진행해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을 지원받아 주민자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마을리더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주민자치 위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높은 온양5동 주민들은 성숙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학생을 온양5동을 이끌어갈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죠.”

이를 위해 겨울 방학기간 동안 인근 학교에 공간을 마련하고 강사를 초빙해 충효예교실, 마을알기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어린이 주민자치 위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도 노력 중이다. 온양5동은 아이들이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주민자치 분위기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내 집처럼 따뜻한 아파트

서산시 동문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작은 변화가 서산시 동문동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 아이들이 북적이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마을회관이 알록달록 다양한 색을 입은 따뜻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공간이 변하자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기기 시작했다.

세대가 어우러진 아파트

서산시 중심에 있는 동문동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산 동부시장과 버스터미널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해 있던 지역에 2006년 서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아파트단지인 한라 비발디와 동문 코아루아파트에만 현재 2,000세대가 모여 산다. 주민이 늘어나자 2008년 2월 동문동이 동문1동과 동문2동으로 분할했다.

동문2동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다양한 연령대가 거주한다. 아파트 맞은편 서동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을 둔 젊은 세대와 처음 한라비발디를 분양받아 입주한 노인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오래 거주했거나 초등학교 학부모 활동을 통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침묵하는 일은 별로 없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 일이 자연스럽다.

주민들간 대화는 많지만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카페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대부분의 주민활동은 부녀회와 노인회 등 작은 소그룹으로 진행했다. 다양한 주민이 한 아파트에 모여 산 지 이제 10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부터 한라비발디 주민들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마을회관 활성화 사업을 기획했다.

아이들의 사랑방 작은도서관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이면 아이들은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모여든다. 2015년 겨울방학 동안 한라비발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아이들로 북적였다. 책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작은도서관은 쓸쓸한 공간이었다. 설립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곳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단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정도로만 사용됐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또래 친구를 사귄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부녀회는 시범공동체 건설당을 계기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책 읽기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미니북을 만드는 활동이다. 시간에 따라 달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왜 달의 모양이 변하는지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하고 각 나라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에 관한 책을 읽기도 했다. 책은 아이들이 관심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재능 있는 주민이 강사로 참여해 콤팩트 커버 만들기 등 손을 움직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은도서관에서 열렸다. 작가를 초빙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엄마의 말 공부’라는 주제로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읽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작은도서관은 아이와 부모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됐다. 부녀회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속 문화공간 마을회관

작은도서관에 아이와 부모가 모이기 시작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더 다양한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 비어있는 마을 회관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도서관이 아이와 부모의 사랑방이라면 마을회관은 모든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아파트가 생긴지 10년이 됐지만 마을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마을회관은 거의 빈 공간이었어요. 벽도 하얀 무채색이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차가운 느낌이었죠. 마을회관을 보면서 이곳이 따뜻한 공간이 되면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미활동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이요.”

한라비발디 부녀회 회원 서인숙 씨의 설명이다. 한라비발디 부녀회는 시범공동체 후속지원 사업비를 활용,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차갑던 마을회관을 따뜻한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밋밋하던 하얀 벽은 화사한 색을 입고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채워졌다. 벽 한쪽에는 빔프로젝터를 설치해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마을회관은 모든 주민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도, 바느질, 독서모임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라비발디가 재밌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 안은 따뜻한데 집 밖은 너무 차가운 세상이잖아요. 아이들이 집 밖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자칫 건조할 수 있는 아파트를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활동에 점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어 좋습니다.”



전통이 이어지는 마을

논산시 광석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광석면은 지난 2015년부터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세대 간 격차를 없애고 주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석면의 오랜 전통인 지와바리 놀이를 계승해 마을 잔치를 펼치기도 하고 마을잔치 한마당을 통해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든다.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이침을 배운 주민이 노인 돌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축제

광석면은 조선시대에 넓은 돌이 두 개 있다 하여 마을에 붙여진 이름이다. 논산 시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광석면은 넓은 논산평야가 있어 밭농사와 벼농사가 발달했다. 이외에도 딸기와 배, 수박 등 채소류와 원예농업이 활발하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

광석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하며 광석면의 오랜 전통인 지와바리 놀이 재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와'는 지붕에 얹은 기와를 뜻하고 '바리'는 밭다라는 말의 광석면 방언이다. 지와바리 놀이는 칠석 즈음 논을 다 멘 사람들이 풍물을 치며 마을로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 축제다. 논을 다 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집을 짓고 기와를 얹은 후 지붕에 올라 기와가 자리를 잘 잡도록 흙을 다지는 모습과 비슷하다하여 지와바리 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풍악을 울리는 사람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지와바리 놀이가 벌어지면 한 곳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신다. 농업이 기계화되며 지와바리 놀이와 두레가 점차 사라졌지만 1993년부터 논산문화원이 이를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다. 3년의 노력 끝에 1996년 충남 민속예술제에서 지와바리 놀이를 재연할 수 있었고 지금도 오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광석면 주민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지와바리 놀이 배우기를 진행



하고 있다. 지와바리 놀이를 배운 주민들은 마을 축제와 대구, 강경 등 다른 지역 문화 축제에 참여해 광석면의 오랜 전통을 알리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와바리 놀이 외에도 이침 배우기, 스포츠 댄스, 풍물, 노래교실, 건강체조, 기타, 요가 프로그램을 매주 2회씩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준비한다. 발표회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옆에 자리한 광석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마을

광석면은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어귀에 빛돌마을 꽃길을 조성했다. 논산 시내에서 광석면으로 들어오는 도로변에는 코스모스가, 왕전리에서 공주로 나가는 도로변에는 무궁화를 심었다. 빛돌마을 꽃길이라는 이름은 마을 이름인 광석면에서 따왔다. 마을 입구부터 구

석구석까지 아름다운 광석면을 만들자는 생각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봄이 되면 새로운 꽃을 심고 길을 재 정비하는 일에 주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동참한다. 노인 인구가 많은 광석면은 세대 간 격차를 없애고 소외되는 주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

들기 위해 노인 돌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인 돌봄 사업은 마을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마을 독거노인을 돌보는 활동이다. 지원하는 주민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 돌봄 사업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귀의 일정한 부위에 침을 놓아 병을 치료하는 이침을 교육받은 주민도 함께 참여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홍태의 씨는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해 주민이 서로 돕고 돌보는 봉사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정서적인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이 서로 단합하고 단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마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주민이 된다면 마을이 행복해지겠죠.”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마을잔치 한마당도 준비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 주민이 다 함께 모여 율놀이 대회를 열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에게 답이 있다

부여군 초촌면 주민자치회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부여군 초촌면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이 주민 스스로가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문화유산 관람 시설 가꾸기, 문화탐방, 해맞이 행사 등 모든 마을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기획하고 준비한다.

문화유산으로

마을의 문화를 만든다

부여군 초촌면은 논산, 부여, 공주 등 3개 도시의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3개 도시가 모두 가까워 어느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소사리, 송국리, 송정리 등 11개 법정리가 초촌면에 포함되어 있다. 마을은 하천의 퇴적으로 펼쳐진 넓은 평야와 낮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돼 논농사와 밭농사가 발달했고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초촌면은 문화유산이 많이 발굴된 지역이다.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기도 다양하다. 1975년 발굴된 선사시대 유적지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충남 유형문화재 제21호 세탑리를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초촌면을 찾는다. 이외에도 연화리 석광묘, 초평리 고인돌, 송국리 석광묘, 소사리 고분군 등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

초촌면은 2013년부터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참여했다. 주민자치 컨설팅을 통해 마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보락 주민자치회 회장은 “컨설팅을 진행하며 마을과 문화유산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아가 이를 잘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부터 시작했다. 송국리 선사시대 유적지로 향하는 길에는 조롱박과 여주, 호박이 잘 열린 터널이 눈에 들어온다. 유적지를 찾은 관광

객들이 문화유산과 함께 초촌면의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주민이 가꾼 터널이다. 주민자치회는 쾌적한 문화유적 관람 시설을 구축도 하고 조롱박, 여주 등을 판매해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마을기금으로 이용하는 계획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다

“결국 주민에게 답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자치 활동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애정이 있어야만 주민이 주인이 됩니다. 초촌면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보라 회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길 바란다. 주인 된 마음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해야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초촌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컨설팅을 진행하며 농촌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시와 달리 문화 복지혜택이 부족한 지역 특징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활기가 넘치고 문화가 흐르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서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리를 잡아갔다.

초촌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두레풍장 배우기, 헬스, 스포츠댄스 배우기, 요가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요가는 주민 참여도가 높아 2개 반으로 분반해 수업 한다. 화요일과 목요일 낮에는 70세 이상 주민이, 저녁에는 40~60대 주민이 참여한다. 주민자치센터 1층에 자리한 서예실을 찾는 주민도 많다. 같은 취미를 가진 주민들이 모여 함께 연습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초촌면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쾌적하게 가꾸고 있다. 비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들도 구비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주민자치 육성 사업을 통해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 주민을 위한 돌봄 사업도 시작했다. 돌봄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고령 주민에게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자원봉사자는 모두 마을 주민이다.

“초촌면은 앞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돌봄 사업을 위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주민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 다른 주민을 돌볼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수록 초촌면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 자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별한 마을 행사가 없던 초촌면에 해맞이 행사라는 큰 연례행사가 생겨나기도 했다.

끝과 시작을 함께하다

2015년부터 시작한 해맞이 축제는 초촌면의 대표적인 행사다. 마을 주민이 하나되어 결집하는 중요한 축제이기도 하다.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한해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기 위해 시작한 행사를 마을 주민들이 소통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대둔산에서 떠오르는 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자리다. 해맞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해맞이 축제가 처음 열렸던 2015년에만 150여 명이, 2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송곡리 유적지에 모였다. 2017년에는 이보다 늘어난 300~400명 정도가 해맞이 축

제를 위해 초촌면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해맞이 행사에서는 지나가는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한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풍선 날리기는 한해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풍선에 달아 날리는 프로그램이다. 풍선 날리기를 위



해 초촌면 해맞이 행사를 찾는 사람도 많다. 주민자치회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소통하며 초촌면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모닥불을 피워 밤과 고구마를 구워먹기도 한다.

초촌면의 전통문화인 두레풍장도 해맞이 행사에서 즐길 수 있다. 두레풍장은 김매기나 모심기철에 하던 풍물놀이이다. 두레풍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초촌면 주민들이다. 매년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 년 동안 두레풍장을 익힌 주민들이 해맞이 행사를 위해 공

연을 준비한다. 두레풍작에 참여하는 주민은 마을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는 바라는 마음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학생이 됐다.

해가 떠오르면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떡국과 초촌면 전통술인 앻은뱅이 막걸리를 나누며 새로 시작한 한해를 맞이한다. 주민자치회는 해맞이 행사를 통해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을 찾은 관광객에게 초촌면을 알리고 있다. 더 풍성한 해맞이 축제를 위해 초촌면은 논 2,600평을 임대해 마을 공동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다. 주체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마을 인재를 육성하다

초촌면은 2016년부터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사업으로 아이들을 위한 역사교육을 실시했다. 역사교육은 문화탐방으로 구성해 마을 아이들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닫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소재 초등학교생들이 마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에 특별히 신경 썼다. 초촌초등학교에도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초촌초등학교 학생들은 10월 19일에 1차 역사교육으로 부여군의 문화유적지를 찾았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루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며 살아



있는 역사 수업을 진행했다. 1학생 1부모로 기획한 1차 문화탐방에는 학생 65명과 교사 11명, 학부모 40명 등 총 115명이 참여했다. 1차 문화탐방을 떠난 학생과 학부모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부여의 문화유산을 탐방했다. 부여군 동남리에 위치한 백제 사비시대 별궁 인공 연못 공남지를 시작으로 부여군청,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부소산, 백제재현단지, 능산리 고분군 왕릉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했다. 11월 11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층을 중심으로 학생 30명과 교사 5명 등 총 35명이 공주로 2차 문화탐방을 떠났다. 초촌면 주민자치회 이보락 회장은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아이들이 마을을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

“아이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 지역 주민으로서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성장해 성숙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문화탐방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촌면 주민자치회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리하기보다는 주민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사업에 초점을 둘 생각이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





마을 전통 축제로 화합의 계기 마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양송이마을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양송이마을은 1960년대부터 양송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양송이 특화재배에 관한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는 전국 양송이 생산량 중 70% 가량을 공급한다. 효장 상품 양송이 덕분에 양송이마을 소득 수준은 제법 높은 편이다. 개개인의 소득이 높다 보니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현안이라든가 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던 거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세대 간, 구성원 간 갈등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양송이마을 주민자치의 핵심은 갈등 해소와 공동체 복원이었다.

오해와 갈등이 쌓이다

백제 26대 성왕이 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 발전하기 시작한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양송이마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지리적으로는 충청남도의 가장 남쪽에 자리한다. 마을 서남쪽으로는 충청도의 젖줄, 금강이 굽이쳐 흐른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는 전라북도 익산시와 경계를 이룬다.

양송이마을은 몇 해 전부터 석성면 증산리, 비당리와 함께 사비석성권역으로 묶여 다양한 권역사업을 실시했다. 양송이를 테마로 숙박시설, 물놀이 체험장, 양송이 순환농업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농촌인성학교, 양송이버섯따기 체험, 백제역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사비석성권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권역사업은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

문제는 권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다. 모든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뜻을 모아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





했다. 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소극성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 마을 리더들에게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갈등이 발생한 거다.

마을의 또 다른 고민은 귀농·귀촌 주민이었다. 양송이 재배라고 하는 안정적인 소득 수단이 있다 보니 몇 해 전부터 귀농·귀촌

주민이 늘기 시작했다.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생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통의 계기가 필요했다.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

양송이마을의 핵심과제는 소통과 화합이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의 핵심도 갈등 해소였다. 이기태 이장은 “이를 위해 마을의 오랜 전통인 용왕제를 복원하게 됐다.”라고 말한다. 양송이마을에는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조성한 저수지가 하나 있다. 청룡지다. 청룡지가 생긴 후로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 때마다 마을의 안녕과 단합을 위해 용왕제를 지내왔다. 그 역사가 무려 70년이다.

“매년 지내왔던 용왕제이긴 하지만,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진행하며 특별히 용왕제 행사의 내실을 다진 거죠. 그간 권역사업에서 다소간 소외됐던 노인회를 중심으로 용왕제 행사 구성도 새롭게 점검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마을의 오랜 전통 행사인 용왕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거죠.”

용왕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게 됐다. 마음을 열기까지가 힘든 것이지만, 마음을 연 이후에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마련이다. 밝아진 마을 분위기를 토대로 양송이마을은 소소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마을길 가꾸기, 풍물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사업으로 아빠가 만들어주는 우리 마을 이야기 놀이터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을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주민들 반응이 좋다. 풍물동아리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전문 강사에게 교육받고 있는데 평균 15명 이상이 참여한다.

이제는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도 돈독하다. 원주민들은 이주민들에게 틈틈이 농업 노하우를 알려주고, 이주민들은 마을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실히 마을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모든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권역사업에 집중해 우리 마을의 자랑인 양송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로 놀러와 재미있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해야겠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장난감 도서관

청양군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자.’ 이 생각은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마을의제로 실행하는 실마리가 됐다. 수차례의 컨설팅과 주민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올해 3월 장난감 도서관이 드디어 윤곽을 갖췄다. 실제 주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며, 주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인 끝에 만들어 낸 성과다.

장난감 도서관, 주민이 만든 마을의제

청양군 청양읍은 동쪽으로 남산, 서쪽으로는 천마산, 북쪽으로는 문박산 등 해발 300~400m 정도의 산으로 둘러싸인 소분지다. 지천이 여러 지류를 합치면서 읍 중앙을 흐르고 있으며 그 유역에 충적평야가 형성돼 있다. 예로부터 청양군청이 있어 읍내면이라 하였고, 현재도 관할 내 송방리에 청양군청이 소재하고 있다. 청양초등학교, 청송초등학교, 청양중학교, 청신여자중학교, 청양고등학교, 청양대학 등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2015년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총 10회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체 사업을 모색했고, 그 결과 ‘장난감 도서관’을 기획했다.

“청양군은 인구 중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인구증가시책을 지역 현안으로 두고 있었어요. 청양읍은 청양군 안에서도 고령화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구요.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아 아이를 키우는 집도 많고, 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손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보려면 다양한 장난감이 있으면 좋은데, 아이들이 금방 크기도 하고 장난감들이 워낙 고가라 구입하기에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지원 받은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고 하게 됐어요.”

한갑수 주민자치위원장의 말이다. 장난감 도서관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착안한 아이디어다. 장난감 도서관 운동은 196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됐다. 그 후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 현재 약 60개국이 세계장난감도서관협회에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서울 오류동 성베드로 학교 교육터에서 문연 ‘한국 레코텍’이 최초의 장난감 도서관 사례다. 청양읍에서도 지역 현안인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장난감 도서관을 마을의제로 발굴한 것이다.

청양읍에 맞는 의제가 정해진 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아기가 즐겁고 부모가 행복한 청양 장난감 도서



관'이라는 사업 주제를 정했다. 이후 장난감 구입 방법이나 품목 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변화를 주었다. 주민들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마을에서 일하는 여러 단체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



청양읍 장난감 도서관은 읍민 중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비치된 품목은 총 16종이며, 2주 간 대여할 수 있다. 유무료로 대여하며, 유료인 품목도 2~3천 원으로 대여료가 저렴하다. 이

렇듯 이용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난감 도서관은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5개조로 편성되어 돌아가며 상근한다. 현재 장난감 도서관은 청양읍 임시사무소 한쪽에 마련돼 있다. 올해 12월까지 건축 중인 읍사무소 신청사가 완공되면 건물 2층에 장난감 도서관을 정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고 나서 주민 호응이 매우 좋아요. 아이들은 장난감에 쉽게 싫증을 내기도 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꼈던 부모들이 제일 반깁니다. 평소에 손주들을 돌보던 할머니들이 많이 찾아 오시는데,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요. 또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아용 장난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도 많이 밝혀오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

다. 올해 예산이 추경되면 장난감을 더 확보하고, 도서관을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려고 해요. 또 여력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근 면 단위까지도 장난감 도서관을 늘리고 싶어요.”

이번 사업을 하며 주민과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를 만든 것도 괄목할 만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 또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갑수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동시에, 친목과 공평을 모토로 서로 돕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정말 힘든 환경이에요.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 청양읍에서만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동네 한바퀴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례집

펴낸날 2016년 11월 07일

펴낸이 충청남도

기획·디자인 ㈜월간도마토

인쇄

ISBN 978-89-97494-41-5



이 책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을 취재하여 엮은 책입니다.